

# 가톨릭 사회복지

<http://caritas.cbck.or.kr>

Caritas거울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과 사회적 실천

Caritas지식인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Caritas Vision 흐름과 전망 교황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카리타스학에 대한 고찰

내가사는그리스도사회복지 복지 국가를 꿈꾸는 사람 - 이명목

특화된 교구 사회복지회(국)소식: 한 지붕 세 가족: 구리EXODUS (이주민 상담소),  
천국의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토평동 성당

Caritas외침 신명난 장애 아동의 자람터, 생태적 감수성이 가득한 '베타니아공동체'

가톨릭 사회복지 영성 지상 중계 '스트레스와 MBSR'



2017 겨울 통권47호

# 가톨릭 사회복지

<http://caritas.cbck.or.kr>





## 목차

---

### 04 ● Caritas거울(鏡)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과 사회적 실천  
(유영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3 ● Caritas 지식인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안경진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28 ● Caritas Vision 흐름과 전망

교황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카리타스학에 대한 고찰  
(라이너 게리히 교수 / 무르시아 가톨릭대학교)

### 45 ● 내가 사는 그리스도 사회복지

복지 국가를 꿈꾸는 사람 - 이명묵  
(신철민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2017 겨울  
통권 47호

---

53 ● 특화된 교구 사회복지회(국) 소식:

한 지붕 세 가족: 구리EXODUS (이주민 상담소), 천국의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토평동 성당  
(김종민 신부 /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

57 ● Caritas 외침

신명난 장애 아동의 자람터, 생태적 감수성이 가득한 ‘베타니아공동체’  
(김종호 바오로 / 베타니아공동체 큰 머슴)

67 ● 가톨릭 사회복지 영성 지상 중계

“스트레스와 MBSR”  
(박문수 / 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

80 ●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 소식

87 ● 주소록

---

##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과 사회적 실천



유영준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탐구의 배경

지난 2006년부터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만남인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가 10년 동안 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는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은 차이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를 실천 과정에 드러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원고도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의 10년을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정리해 보고, 앞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가 지향해 가야 할 방향성을 찾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은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신념과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의 정체성이 함축된 의미라는 점에서 쉽사리 정의 내리기 어려운 주제임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사회복지 기관이 가톨릭 교회의 종교적 신앙에 기반을 두고, 사회복지를 실천한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직의 개입과 실천으로 드러나는 결과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나아가 가톨릭 사회복지는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은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 혹은 시설의 운영 주체가 집단의 구성원들과 가톨릭 교회의 이념을 공유하고, 집합적으로 이념을 실현해나가는 과정 또는 이를 통해 얻은 일체감, 가시적 이미지” 등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sup>2)</sup>

1)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는 난입니다.

2) 유영준·박문수, 2009, 「가톨릭 사회복지 운영지표 개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

따라서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의 핵심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하여 가톨릭 교회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은 교회의 가르침에 기반을 둔 보편적인 지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언제나 새롭게 구성되어야 할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이 교회의 역사성을 지니면서도 현재성을 갖고 완성해야 할 과업으로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한다. 결과적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은 불변의 특성을 보인 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보편성과 역사성을 가지면서도 새롭게 구축해 가는 발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은 교황 회칙을 통해 지속해서 논의됐으며, 특히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회칙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회칙의 핵심은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박은 이웃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본분’(20항)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① ‘그리스도인의 사랑 실천은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 ②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 ③ ‘당파적인 전략과 원칙에서 벗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히 헌신하기’, ④ ‘사랑을 개종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기’, ⑤ ‘세속주의와 행동주의에 직면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⑥ ‘교회 기관들의 투명한 운영’, ⑦ ‘신자 공동체 안에서 품위 있는 삶에 필요한 것을 거절당하는 어떠한 빈곤도 있어서는 아니 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가톨릭 사회복지의 하느님 앞에 모든 인간은 동등한 피조물로 인정하며, 우리 사회 내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사회적 요구에 우선적으로 응답하는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가톨릭 사회복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조건 없는 헌신과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 역량과 윤리적인 실천과 경영 등을 통하여 가톨릭 신앙의 본질과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들을 모두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은 가톨릭 사회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1891년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부터 199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백주년」, 2009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 등을 포함하여, 100여 년 이상 지속한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집대성한 것이다. 사회교리의 핵심가치들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인



간의 존엄성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는 공동선의 증진, 큰 조직은 작은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에 대한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교리도 가톨릭 교회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추상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회복지 기관운영에 접목할 경우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따라 이용자들의 특성들이 저마다 다르고, 사회복지 기관 운영도 시설의 규모, 조직 구성원의 특성,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에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기관 운영방안을 체질화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은 각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러한 가치들에 기반을 둔 실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 지침과 기관 운영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추후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는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례들을 사회복지 실천 분야별로 소개하고,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2. 가톨릭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고민들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기관 운영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실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기관의 실천 과정과 기관 운영 과정에서 가톨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실천 방안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선 가톨릭 사회복지도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과 기관 운영의 큰 틀에서 사회복지가 실천되는 방식과 과정은 큰 차이가 없을 듯하다. 다만 같은 실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천가가 어떠한 의도와 지향을 두고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천에 임하는가는 실천의 결과에 지대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 1)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이상적 담화 상황의 확보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가톨릭 사회복지지는 큰 차이점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톨릭 사회복지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성과 달리 하느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존재로 인식한다

는 점에서 엄연히 차이점을 가진다. 이때 실천가들은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와 서로 다른 권력을 가진 위계관계가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인식돼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이용자 중심 실천’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천가들은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이용자나 클라이언트를 자신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존재로 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인 보조성의 원리와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가 제시한 담론 윤리는 사회복지 실천가에게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하버마스는 행위 주체가 설정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이성의 도구적 합리성(instrumental rationality)을 비판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담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상적 담화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해성, 진리성, 정당성, 진실성 등을 들고 있다. 이상적 담화 상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담화에 참여하는 이들이 공정한 발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발언 내용이 충분히 경청되어야 하며, 타인의 발언 내용과 타당성에 제한 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김기덕, 2006).<sup>3)</sup> 이러한 의미에서 가톨릭 사회복지가 실천되는 현장에서는 이상적 담론 상황을 구축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을 통해 기관과 실천가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성(reflexivity)이 발휘돼야 할 것이다.

## 2)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새로운 사회복지 실천 분야 선도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은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며,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실천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복지 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개별 사회복지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선택 과정에서 가톨릭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 실천 영역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개별 사회복지 기관들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톨릭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김기덕, 2006,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119-139.

### 3)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사회복지의 본질에 대한 고민

지역사회복지 기관의 본질적인 사명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실천의 주체로 등장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가톨릭 사회교리는 공동체성과 연대성을 중요한 가치로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하게 성찰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기관들이 기관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동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복지의 본연의 역할은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왔는가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공동선의 증진이라는 가톨릭 사회교리의 가르침도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이 실천의 목표로 삼아야 할 핵심 가치 중의 하나라고 본다. 공동선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회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행복의 조건은 사회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기관의 설립 목적이며, 가톨릭 사회교리의 핵심 가치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 4) 기관 이해관계자(지역주민, 기관 이용자, 사회, 조직구성원 등)에 대한 신뢰성 확보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이 다른 사회복지 기관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무엇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회복지 조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관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놓고,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참여와 선택의 수준은 이용자나 클라이언트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은 서비스를 받는 이들과 의도하지 않아도 일종의 권력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기관이 자원들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에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은 권위주의 실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 5) 윤리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고유한 정체성은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다. 윤리경영은 본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거나 마케팅 전략으로 시작되었으나 사회복지 기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은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윤리적인 실천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경영은 기관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다만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은 더욱 윤리적 실천이나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 과정뿐만 아니라 기관 운영 과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기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관종사자들이 포함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과의 관계에서 윤리경영이 실현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윤리경영을 위한 지침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은 무엇보다 이용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 여건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며,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지침들을 구축하고 종사자들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윤리경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관 운영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 고발시스템 구축, 윤리 감사, 직원교육이나 슈퍼비전, 자문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가톨릭 사회복지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제언

### 1)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위원회 구성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윤리 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가칭 ‘가톨릭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윤리적 실천을 보다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개별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윤리위원회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접수하여 윤리적 실천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

구로써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톨릭 사회복지회 산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지역사회, 동료, 사회적 가치 충돌 등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한다면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윤리위원회 구성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중견급 이상 대표 실무자와 이용자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 사회복지학계를 대표하는 이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산하에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위원회를 주관할 수 있는 주체도 선정해야 할 것이다.

## 2)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강령 마련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실천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으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실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공포한 바 있으나 보다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미국 가톨릭 채리티스 윤리강령이나 카리타스 정신을 실천과 관련된 윤리적 실천 지침 등을 기반으로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강령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실천가의 태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전문직 윤리와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을 조율할 수 있는 윤리강령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다문화 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존중 등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윤리강령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따라 이용자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기관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가톨릭 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가톨릭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sup>4)</sup>은 교회, 지역사회, 전문직에 대한 책임을 먼저 다루고 있으며, 이용자에게 대한 책임과 실천 현장에 대한 책임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가톨릭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에서 교회와 지역사회,

---

4) <http://www.cswna.org/Code-of-Ethics>

전문직에 대한 책임의 근거는 가톨릭 사회교리(catholic social teaching)에서 찾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포함하고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spiritual)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3)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윤리경영 지침 제작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강령이 한국가톨릭 사회복지의 전체 기관에 대한 윤리적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면, 윤리경영을 위한 지침은 개별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리경영은 기관의 비전과 미션 구축과 윤리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이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 등으로 세분화시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을 위시한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구축하고, 자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기관별 윤리경영 지침을 마련해 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기관의 윤리경영에 관한 연구들을 언급하자면, 양옥경·최명민(2010)<sup>5)</sup>은 사회복지 기관 윤리경영 자가 점검지표에서 윤리경영의 철학과 전략, 직원·이용자·전문가 조직·기관 관련자에 대한 윤리성 등을 제시하였고, 2014년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윤리경영 선언문에는 이용자 존중과 보호, 전문가의 역량 강화, 자원봉사자·후원자·실습생 존중,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사회복지 윤리경영 교육·실천 매뉴얼에는 세금과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직원채용 및 인사관리의 공정성, 최상의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정부 및 지역사회 조직과의 협력과 참여, 사회적 가치향상 등을 윤리경영의 내용 등으로 윤리경영의 범위를 확대했다(이명목, 2008).<sup>6)</sup> 2000년 미국 사회복지 윤리 감사 도구를 개발한 Reamer는 이용자 권리 및 비밀보장, 사생활 보호, 문서기록과 보관, 직원개발 및 훈련, 자문 및 의뢰, 종결 평가와 연구, 기관 운영의 윤리적 결정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윤리적 요소들을 17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양옥경·최명민, 2010). 다만 한국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은 실현 가능한 윤리경영의 가치를 먼저 설정하고, 이에 기반을 두어 실천의 원칙들을 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5) 양옥경·최명민, 2010, “사회복지 기관 윤리경영 자가점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2), 43-77.

6) 이명목, 2008, “사회복지 기관의 윤리경영”, 사회복지 윤리경영 교육·실천 매뉴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5-219.



#### 4. 맺음말

윤리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에토스(ethos)에서 찾을 수 있다. 에토스의 의미는 ‘습관’, ‘관습’을 의미하며, 당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허용되는 행위를 충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윤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 부여하는 개념이 되었다. 가톨릭 사회복지의 정체성도 우리 시대의 가톨릭의 실천 윤리에서 찾으려고 시도한 것은 그것이 가톨릭의 고유성과 정체성의 핵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톨릭의 정신이 드러나는 윤리적 실천 행위 속에는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톨릭 사회복지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한국 사회에 적합한 가톨릭 윤리 강령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은 앞서 언급한 대로 윤리적 실천과 윤리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구축에 불과하다. 다만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가톨릭 사회복지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나아가 가톨릭 사회복지의 지향은 ‘전인적 돌봄’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듯하다. ‘전인적 돌봄’은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경제적·심리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영적인 측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전인적 돌봄’의 대상은 기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해당되어야 할 것이고,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포함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듯하다. ❀

##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sup>2)</sup>

### - 사회복지관 조직 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안경진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1. 문제 인식

우리나라는 2016년 GDP를 기준으로 평가한 국가 경제 규모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 발표된 「World Happiness Report」 행복지수에서는 세계 155개국 가운데 56위에 머물렀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국민 행복 수준은 그에 따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일과 삶의 균형’이다. 한 개인이 사회인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일과 삶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 안에서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 문제로 발생하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곧바로 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행복한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많은 학자는 이 같은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간 내면에 잠재된 영성을 발견하고 이를 계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영성의 중요성은 사회복지 조직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가치기반(value based)과 윤리기반(ethics based) 학문에서 인권기반(human rights based)의 학문으로 이행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역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성은 사회복지 조직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사회복지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업무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초월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실천과 영성의 관계는

1)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획한 난

2) 본고는 2017년 12월 심사를 통과하여 2018년 2월에 졸업하는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가톨릭사회복지학과 안경진 학생의 석사논문입니다.

영성이 주로 실천가의 개인적 특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김용환 · 최금주 · 김승돈, 2009).

일터영성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자기 일과 일터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 영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 따라서 일터영성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여 사회복지사 업무환경 및 개인 삶의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지향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제적 수입과 지출과 같은 요인이 아니라 긍정적 감성, 일의 의미감, 일의 성취를 통한 만족감, 직무에 대한 만족감 등 요인이 사회복지사의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문승연, 최인숙(2011)의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일터영성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또한, 일터의 구성원들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면서 스트레스나 정서적 · 신체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긍정의 힘, 마음의 힘 또는 정신적 면역력이라 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주목받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사회복지사의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잘 적응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한다. 즉, 역경과 시련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취약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 차이를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 두 개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미하다.

조직 문화는 오랫동안 조직 심리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조직 문화의 특성이 조직과 개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Smirich(1983)는 조직 문화가 구성원들 간 일체감을 조성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과 안정적인 체계를 도모하고 구성원 행위를 형성하며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Smirich, 1983; 오정순, 2012 재인용). 따라서 사회복지관 조직 문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업무 환경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사회복지사들의 삶의 만족도와 직결된다(오정순, 2012).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제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새롭고 다양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였고,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국민 의식 수준 향상으로 복지는 더는 국민들에게 시혜가 아닌 권리이고 국민들은 단순한 복지 수혜자가 아니라 수

요자로 인식되고 있다(최소연, 2016). 이와 같은 복지환경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 기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성, 전문성, 보편성 등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러한 기본 전제들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기능으로 연결되며, 결국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실천을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 기관의 주체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는 인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다(한은하, 2016).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이에 대한 사회복지 조직의 대응의 하나로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노력이 강조된다.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는 사회복지사들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모두 사회복지사의 일터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터영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에 따라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일터영성

일반적으로 영성은 종교적인 면에서만 연구돼 왔다. 그러나 최근 일터영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은 공통으로 영성과 종교를 서로 구별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일종의 규정된 신념이며, 기도와 의례, 의식들로 이루어진 체계적 시스템인 것에 비교해 영성은 정신세계의 질적인 문제로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의 조화 등 긍정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영성은 종교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터영성 연구도 영성을 종교와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터영성은 개인의 영성이 일터에서 나타나는 모습, 또는 영성이 나타나기 위한 정신 상태라고 정의한다. 이와 같은 일터영성 개념은 많은 연구자의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Mitroff & Denton(1999)은 일터영성에 대해 자기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것과 함께 조직 내에서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강한 연결성을 찾으려 하고, 자신의 신념과 조직의 가치 안에서 일관성을 갖는 것을 내포하는 개념이라 하였다. Ashmos &

Denton(2000)은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 있는 일을 통하여 길러진 내면세계를 조직구성원이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Marschke와 Perziosi, Harrinton(2011)은 “자기 자신을 영적인 존재(spirited being)로 인식하는 이들에 대한 것이자, 자신을 영적 존재로 인식하는 이들의 내면이 일을 통하여 활력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는 일을 함에 있어 급여와 성과를 뛰어넘어 일 안에서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 하였다.

유규창과 서재현, 김종인(2010)은 일터영성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업무수행 및 상호교류 속에서 개인의 내면을 중시하고 초월성을 인지하며, 상호연계를 추구하는 상태”로 정의한다. 노상충(2013)은 “개인을 둘러싼 일과 조직이라는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더 나은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인간의 심리상태”라 정의하였다.

### 2.1.1. 일터영성의 구성요소

일터영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최초의 실증 연구는 Mitroff & Denton(1999)가 진행하였다. 그들은 100명의 부장과 임원들을 인터뷰하여 일터영성을 완전한 자아, 다른 사람, 전 우주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 느낌으로 정의하였다(김종인, 김영덕, 2011).

Ashmos & Duon(2000)은 696명의 실증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터영성을 조직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일에 의해 증진되는 내적 삶(inner life)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일터영성의 구성 요소로 공동체의 조건(conditions for community), 일의 의미(meaning at work), 내적인 삶(inner life) 등 3가지 요소로 정의하였다. 또한 Miliman(2003)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Ashmos & Duon(2000)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인과 집단, 조직의 차원으로 연구를 확장하였는데 이를 통해 일터영성의 구성 요소를 의미 있는 일(meaningful work),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조직의 가치와의 정렬(alignment with organizational) 등 3가지 차원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최미정, 2016).

이들 연구에서 내린 정의와 달리 Kinjerski & Skrypnek(2006)는 일터영성을 연구 참가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기존의 연구와 다른 차원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직무 열의(engaging work),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 영적 연결성(spiritual connection), 신비 체험(mystical experience) 등 4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점은 구성 요소에 동료들과의 연결성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의 ‘개인-일-조직’이라는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났다는 면에서 참신하다.

유규창 · 서재현 · 김종인(2011)은 국내 최초로 일터영성의 구성요소를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일터영성을 내면세계, 초월성, 상호연계성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김영덕(2012)은 기존 연구의 공통 요소를 바탕으로 상호성, 일에 대한 의미 부여, 내면성, 초월성, 개인과 조직 간 가치정렬 등 5가지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후 노상충(2013)은 김영덕(2012)이 제시한 구성 요소와 함께 개인 자신과 일, 타인, 공동체, 초월성의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상충과 서용원(2014)은 노상충의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 일에 대한 소명 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초월의식 등 5가지 차원으로 일터영성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상충과 서용원(2014)이 제시한 일터영성의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삼았다.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a sense of inner life)

일터영성의 한 가지 중요한 차원은 조직을 구성하는 각 개인은 내적 삶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욕구들이 일할 때도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노상충(2013)은 “일이 개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줄 때 개인은 동기화될 수 있고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내면 의식은 “단지 신체적 혹은 지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 아닌 자신의 존재의 많은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일에서 기회를 찾는 것에 대한 것(Ashmos & Duchon, 2000)”이다.

### 2) 일에 대한 소명 의식(a sense of calling)

‘소명’은 개인이 하는 일을 단순히 도구적 목적이나 경력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인생의 목적과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인식되는 것이다(유영준, 2013). 과거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의 의미와 달리 현대인들에게 일이란 생계 수단 차원을 넘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매개 수단이자 자아실현 수단이다.

노상충과 서용원(2014)은 소명 의식을 일터영성 연구의 핵심 구성 개념으로 밝히는데 이는 자신의 삶에서 뿐 아니라 일터에서 행해지는 일을 통해서도 지속적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이며 일에서 의미를 찾는 개념은 여러 학자에 의해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3)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a sense of empathy)

공감이라는 용어는 ‘Einfühlung(감정이입)’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1872년에 로베르트 피셔(Robert Vischer)가 미학에서 사용한 용어였는데, 이후에 Titchener(1909)는 ‘Einfühlung’을 ‘공감(empathy)’으로 번역했다. 공감에서 ‘감(感: pathy)’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으로 정의했다(최미정, 2016). 따라서 공감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정의되고(Twigg & Parayitam, 2006)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Farlex, 2007, 노상충, 서용원 2014). 그러므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에 대한 인지와 타인을 도우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 4)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a sense of community)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일터는 단순히 일을 위한 공간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의 일차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은 이 같은 일터를 공동체로 바라보고 소속감을 통해 자신과 조직의 다른 구성원의 성장과 완성을 추구하는 것(Ashmos & Duchon, 2000, 서정기, 2014)이며,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5)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a sense of transcendence)

초월성은 초월적 존재로서 신이 아닌 무언가를 넘어섬(depassement)을 의미하는 개념이다(노상충, 서용원 2014). 초월성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초월하여, 삶의 의미를 찾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누구나 인간은 자신을 보존하고 개인의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한다.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 욕구는 일터에서 지위, 소득, 안전 등을 지키려는 속성을 지니게 한다. 그러나 초월성 개념은 일터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구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넘어 더 큰 세계와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시도라 볼 수 있다(유영준, 2014). 그러므로 일터영성의 구성 요소로서의 초월은 순수한 인간 존재로 일과 환경에 몰입하여 자신을 벗어나 더 큰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려는 의식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 2.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원래 탄력적 특성의 물질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라틴어의 'resiliere'에서 파생된 영어의 'resilience'는 원래 물질이나 기관의 유연성과 신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구부러거나 압축되고 늘어진 후에 다시 튀어 오르거나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신체적·심리적 위협요인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홍영희, 2016).

국내에서는 회복탄력성이라는 용어 번역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극복력’(김동희, 2003), ‘복원력’(오승아, 이양희, 1999), ‘심리적 건강성’(이완정, 2002), ‘유연성’(서지영, 2002), ‘적응 유연성’(김민아, 권경인, 2008; 김예성, 박현선, 2007; 박지아, 유성경, 2003), ‘탄력성’(김승경, 강문희, 2005; 이해리, 조한익, 2006; 홍은숙, 2006), ‘회복력’(김혜성, 1998)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사용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위험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는 기본 정의에서는 일치하고 있다(권수현, 2010).

### 2.2.1. 회복탄력성 구성요인

대부분 연구자들은 회복탄력성을 다차원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적 개념으로 설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Wagnild와 Young(1993)은 인내심, 자기 신뢰, 의지력, 독립심, 평정심을 제시하였고, Dyer와 McGuiness(1996)는 자아의식, 결단력, 유연성, 친사회적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 Russell과 Russell(1995)은 회복탄력성의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으로 자기 신뢰, 개인적 비전, 융통성, 조직력, 문제해결력, 대인관계, 사회성, 계획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 특성이 스트레스나 변화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홍은숙(2006)은 원인 분석력, 감정 통제력, 충동 통제력, 생활에 대한 만족, 낙관성 등 개인 내부 자원과 부모-자녀 관계의 가정 내 환경을 포함하는 외적 자원,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 타인에 대한 공감의 정도 등의 사회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eivich와 Shatte(2003)이 제시한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을 김주환(2011)이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 9가지 구성 요인을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1) 자기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능력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의 감정 조절력으로 스스로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충동 통제력으로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원인 분석력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도 정확하게 평가해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게 한다. 자기 조절 능력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등이다(김주환, 2011).

#### 2) 대인 관계 능력

대인 관계 능력은 자신과 친밀한 대화를 할 친구 또는 타인이 있는 것과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최말옥, 2010). 대인 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주환, 2011).

### 3) 긍정성

긍정성은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회복탄력성을 높여주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후천적 노력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길러주는 것이 긍정성이고, 이는 곧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일이 된다(김주환, 2011). 긍정성의 하위 요소는 자아 낙관성, 생활 만족도, 감사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 2.3. 조직 문화

조직 문화(organizational culture)란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신념, 이념, 규범, 행동 양식을 포함하는 종합 개념으로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 전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이다(한국의료QA학회, 1999). 따라서 조직 문화는 시장 변화와 기술 혁신 등의 변화와 함께 조직 구조나 관리 수단의 한계성이 인식됨에 따라 조직의 성과를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문화에 대한 정의는 각 연구자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다(임진섭,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자가 연구한 조직 문화의 개념을 언급하고 이를 통해 조직 문화에 대한 공통적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조직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자 한다.

Pettigrew(1979)는 조직 문화를 상징, 언어, 이념, 신념, 의식, 전통 등 조직체의 총체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Ouchi(1981)는 조직 문화를 조직의 가치관과 신조 및 행동 패턴을 규정하는 기준이라 설명하였으며, Deal & Kennedy(1982)는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비공식적 지침이라고 하였으며, 가치, 신화, 영웅 및 상징의 개념들이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Smirich(1985)는 조직 문화를 상호작용 시 관찰되는 행동 규칙성, 조직의 지배적 가치관, 조직 구성원과 고객에 대한 정책 수립의 지침이 되는 철학이라 설명하고 있다(최소연, 2016).

신철우(1987)는 조직 문화란 조직 구성원의 공유된 가정, 가치와 신념, 규범과 관습, 의례와 의식 그리고 상징으로서 조직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설명하였다. 다운섭(1999)은 조직 문화를 조직 내의 공유된 신념이나 가치가 무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작용해서 조직 외부에 대한 적응과 내부의 통합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라 하였다.

## 2.4.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및 조직 문화와의 관계

일터영성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일을 통한 의미감을 기반으로 한다. Giacalone과 Jurkiwicz(2003)은 일터영성은 세상과 긍정적인 태도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며, 이타적 사랑과 행동을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영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는 낙관성, 공감 능력(김주환, 2011)과 평정심, 자기 신뢰(Wagnild & Young, 1993) 등이 있는데, 세상과 긍정적인 태도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낙관성과 같고, 이타적 사랑과 행동을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의 결과적 행동이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영적 자원 활용은 회복탄력성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역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자원이며, 동시에 역경을 예방하는 요인이기도 하다(김성은 · 김철희, 2014).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영향을 덜 받으며 현저하게 낮추는 능력이다(Luthar & Zigler, 1991).

일터영성은 내면적 진리를 추구하려는 의식과 존엄성을 갖추고 살고 싶은 의지의 표현이며,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다. 회복탄력성 또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역경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가치 실현을 위하여 영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느끼고,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 2.5. 회복탄력성과 조직 문화와의 관계

회복탄력성과 조직 문화와의 관련된 선행연구는 오선영 · 노상충 · 강민우 · 서용원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은 변혁적 리더십과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에 의한 회복탄력성이 조직 구성원의 행복감과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와 회복탄력성 간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였는데 인간 존중의 문화는 구성원에게 지각된 조직적 지지를 높임으로써 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조직 문화 가운데 인간 존중의 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회복 탄력성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6.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조직 문화와의 관계

일터영성은 개인의 영성이 일터에서 발현되는 모습 또는 영성이 발현되기 위한 정신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일터영성은 자신의 궁극적 삶의 목적을 찾는 노력과 일과 관련된 사람들과 강한 연결성을 계발하고, 자신의 핵심 신념과 조직 가치 간의 일관성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회복탄력성은 역경 속에서도 나타나는 긍정적 산물이자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조직에 속한 개인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일터영성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조직 문화의 유형에 따라 변화가 있음이 유의미하게 드러났다. 또한, 조직 안에서 조직 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은 그 조직이 가진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앞선 선행 연구를 통하여 밝혔듯이 조직 문화 가운데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원 개인의 회복탄력성 간 정적 상관의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직 문화의 유형과 개인의 적응 유연성이 서로 연관이 있다.

결국,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조직 문화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은 서로 연관이 있고 조직 문화는 이러한 연관 관계 안에서 조직 문화가 어떠한 유형인가에 따라 관계의 정도를 조절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조직 문화의 관계를 일반 조직이 아닌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해봄으로써 사회복지사 개인이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일터영성과 조직 안에서 느끼는 적응 유연성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회복지사 개인이 조직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복지사 개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 3.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중심의 가톨릭계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와 사회복지사들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초 통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와 이론을 토대로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가장 적합한 모형을 최종 연구 모형으로 선정해 일터영성, 회복탄력성, 조직 문화 간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의 영향에 대

해 파악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를 통한 업무환경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1. 주요 결과

각 변수의 평균부터 살펴본다. 응답자의 일터영성 수준은 평균 5점 만점에 3.66으로 보통 이상의 일터영성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영성에 대한 하위 요인 평균은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 3.30점, 일에 대한 소명 의식 3.79점,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 3.80점,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3.84점,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의식 3.57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내면 의식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다.

회복탄력성 수준은 평균 3.6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긍정성 3.78점, 사회성 3.73점, 통제성 3.56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 조직 문화의 평균은 3.22점이었다. 관계 지향 문화가 3.69점으로 가장 높았고, 혁신 지향 문화 3.33점, 위계 지향 문화 3.00점, 그리고 업무 지향 문화 2.86점 순이었다.

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았다.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소지할수록, 경력과 근무 기간이 높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일터영성 수준이 높았고 업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연구·기획 업무를 포함한 관리 행정업무를 담당할수록 일터영성 수준이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수준이 높으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사 직책은 직급이 높을수록 탄력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급여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의 담당업무가 연구·기획업무를 포함한 관리행정직을 맡을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보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관인 사회복지관 조직 문화 수준이다. 사회복지 기관의 조직 문화유형은 관계 지향 문화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 연령대와 경력이 높을수록 관계 지향 문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가 맡은 담당 업무에 따라 기획 및 연구직을 포함한 관리 행정 업무를 맡을수록 관계 지향 문화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로 설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는 회복탄력성의 사회성과 조직 문화의 업무 지향 문화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는 회귀분석 결과 일터영성의 하위요소 가운데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을 제외한 요소(일에 대한 소명 의식, 조직에 대한 공동체 의식,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 자신을 향한 초월 의식) 모두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관계는 기혼 사회복지사일수록,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일수록, 기획 및 연구직을 포함한 관리행정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일수록 더 높은 영향 관계를 보였다.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관계에서 조직 문화유형의 조절 효과에서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 문화의 하위요인에서 조절 효과는 관계 지향 문화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 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은 더 증가하며 특히 사회복지관 내에 조직 문화가 관계 지향적일수록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본 연구의 논의 및 함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수준은 사회복지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근무하는 복지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은 사회복지사의 종교와 무관하게 삶의 경험, 사회복지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높고 삶의 조건과 사회복지관에서의 업무환경이 안정적일수록 일터영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은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소지할수록, 경력과 근무 기간이 높을수록, 급여가 많을수록 일터영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업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연구·기획 업무를 포함한 관리 행정 업무를 담당할수록 일터영성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일터는 노인복지관에 근무할수록 일터영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사회복지사 연령과 경력, 급여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사 일터영성이 높다고 연구한 김현정(2016)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종교가 있는 사회복지

지사의 일터영성이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사보다 일터영성이 높다고 연구한 권경임(2017)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높게 측정되었고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근무 기간이 길고 직급과 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측정되었으며 업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연구·기획 업무를 포함한 관리 행정 업무를 담당할수록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할수록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직급이 높고 급여가 많을수록 사회복지사의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경미(2015), 한선영(2015), 홍영희(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 결과는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환경 및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 가운데 자신에 대한 내면 의식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업무 과중화로 인하여 업무에만 매몰되고 그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일의 가치를 생각할 여유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기업 사무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연구한 노상충(2013)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터영성은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함께 어렵고 힘든 환경 안에서 회복 시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의 비전 구현과 잠재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노상충, 2013). 그러므로 사회복지관 내에서 직원들의 정기 교육이나 규칙적인 일과 시간 안에 일터영성을 증진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한 일터영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개인의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개인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일과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관계에서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며 특히, 관계 지향 문화일 때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주 대상인 클라이언트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하여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가 관계 지향적 문화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의 동질적 소속감을 느끼며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직 문화는 개인과 조직의 가치 및 신념, 관습, 전통, 지식과 기술 등 여러 요인의 상호 작용 아래 오랜 시간에 걸쳐 점차 형성된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문화는 더욱 강력하고 집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 새로운 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즉 오래된 기관일수록, 특정 이념이 굳어진 조직일수록, 조직의 변화가 어렵다. 세계적 흐름과 복지 동향에 부응하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혁신 지향적인 문화에 대한 연구와 도입에 조직이 더욱 열린 사고와 적극적인 관심,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임진섭, 2007).

사회복지사의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조절 효과를 가지는 조직 문화유형은 관계 지향 문화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조직 문화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성격에 부합하는 소통과 협력, 구성원 간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지향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관 안에서 조직 구성원인 사회복지사들이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소통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조직 구조는 수평적 조직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한은하, 2016).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조직은 상하관계의 위계 및 서열을 중시하는 구조가 아닌 ‘팀워크(team work)’라는 협력 자세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직 구성원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 특성을 가진 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 간 의사소통,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급자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동의 의사소통 통로가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의 단합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간접 투자이다(임진섭, 2007). 따라서 사회복지관에서 관리 및 운영업무를 맡은 상급자들은 사회복지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관계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조직 안에서 협력과 결속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3.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한계성이다. 사회복지 현장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중심의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된 조사 대상이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전국적인 사회복지사 현황을 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연구하였을 때 지역 및 도·농간 비교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일터영성과 회복탄력성, 조직 문화의 이론적 고찰 및 그 관계를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연계된 요인들을 함께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하며 양적 연구뿐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처한 구체적 현실을 담을 수 있는 질적 연구 기법을 통한 연구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일터영성 척도는 사회복지 조직이 아닌 영리기업을 위한 척도이기 때문에 연구 도구에서 사회복지 조직만을 위한 척도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조직이 가지는 특수성이 내포된 일터영성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사회복지 조직과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특수성을 고찰할 수 있는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

# 교황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카리타스학에 대한 고찰<sup>1)</sup>

(The Encyclical *Deus Caritas Est* :  
perspective for the theological of charity)

라이너 게리히 교수 | 무르시아 가톨릭대학교

## 서론

약 10년 전 즈음, 저는 카리타스에 관한 국제 회의(2006년 1월<sup>2)</sup>) 참석자로 이 자리에 앉아,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첫 번째 회칙이자 특별히 ‘사랑’을 주제로 한 회칙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권<sup>3)</sup>에서 카리타스학에 대한 성찰이 오랜 기간 동안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폼페이<sup>4)</sup>, 2007, 20쪽), 이 주제를 연구해 온 사람들에게 이번 회칙은 카리타스학을 인정하고,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회칙이었습니다. 회칙을 발표하시기 직전, 대중 앞에서 교황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이 회칙을 소개하시고, 이해하는 길잡이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번 회칙에서, ‘하느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으로서 하나로 융합됩니다”(베네딕토 16세, 2006b<sup>5)</sup>). 신학 분야에서 반응들은 다양하여 이번 회칙을 “이후 일어난 카리타스학 발전을 위한 촉매제”(바우만<sup>6)</sup>, 2014, 111쪽)로 규정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의 쇄신에 영감을 주는 신학 프로그램”(폼페이 2007, 9쪽)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칙을 통해 학문 차

1) 본 글은 2016년 2월 25-26일, 로마에 있었던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반포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Prof. Rainer Gehrig)을 번역한 내용으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발췌하였다.

2) 2006년 1월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the Pontifical Council Cor Unum) 회원들에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에 대한 두 번째 소개를 하심.

3) 교황의 가르침(papal Magisterium)

4)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는 가톨릭 신학의 한 학문 분야로 카리타스학을 별도 학문으로 가르침. 유럽에서 카리타스학의 선도자 역할을 하는 하인리히 폼페이 교수. 현재는 체코에 있음.

5) 2006년 1월 교황청 사회복지평의회 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6) Klaus Baumann 교수. 프라이부르크 대학 카리타스학과 학과장. 신학자

원에서 카리타스학의 준거들을 마련하려는 것이 교황님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분명 이 회칙에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후속으로 나온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은 발표된 직후부터 교회의 카리타스 활동들의 신학적 토대<sup>7)</sup>를 다지는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회칙을 바탕으로 몇 가지 성찰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카리타스학의 이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완벽한 논문이라기보다는 사회 복지 와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기관들과 협력자들 사이에 대화를 하게 하는 제안으로 발표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적은 교회와 교회 구조가 하는 사랑의 봉사활동에 특히 주안점을 두며 신학 교육과 양성의 영역에 굳게 자리하고 실천하는 더욱 체계적인 성찰이 일어나 도록 하는 것입니다.

## 1. 오늘날 우리는 카리타스학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회칙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교회 교도권에서 제기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밝히셨습니다. 카리타스 활동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기반은 사랑의 신학적이며 인류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황님은 이를 철학적, 성서학적, 신학적 담화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카리타스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오늘날 이것이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어려움 중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 1.1. 카리타스학의 발전과정

로요 마린의 저서(1963년)<sup>8)</sup>와 같이 카리타스학에 대한 전통적인 개요서에서는 토미즘의 도덕적 관점에서 신학적 덕의 특성을 하느님 사랑, 자기 자신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일반적이고 또 구체적인 도덕 원리라는 보편적인 기준에서 설명되며 자비의 활동으로 하는 카리타스 활동의 긍정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들로 체계적으로 분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설명은 체계적인 신학적 지침을 기대하고, 읽은 내용을 준수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독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사회는 카리타스의 수혜자로 제시됩니다. 각 개인과 카리타스의 덕 안에서 성장하려는 개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며, 카리타스 실천 활동에 있어 무엇을, 언제, 얼마나는 상세히 설명하지만, 도움이 필

---

7) foundation을 여기서는 토대로 번역함.

8) Royo Marin (Antonio Royo Marin) 1963년 저서에는 Dios y su obra(God and His Work)와 Teología de la caridad (Theology of Charity)가 있음. 제목으로 보아 후자로 추정됨.

요한 사람들을 동반하는 문제나 어떻게 카리타스 활동 안에서 믿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파해야 하는지, 활동을 위해 어떻게 지역사회를 조직하는지, 사랑을 베풀기 위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 안에서 구조화된 가난과 불의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디아코니아의 신학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오리올 타타렛<sup>9)</sup>, 2000, 208-243쪽) 이런 전통적 도덕적 설명이 있기 이전인 19세기 말에도, 산업화되고, 복지 국가가 태동하고, 사회 경제 분야가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경험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사회 영역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전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는 사회적 맥락에서 조직화된 카리타스 활동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대화되어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며, 20세기 초 독일에서 이 문제에 집중하는 카리타스 연구소<sup>10)</sup>가 설립되었고, 관련 학술 교육이 진행되며 이와 협력하여 카리타스 활동이 우선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1897년), 그리고 이후 카리타스의 이름으로 교구 수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단체(조직)로서의 카리타스의 시초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카리타스학<sup>11)</sup>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교의 덕목 각각을 다루는 카리타스학은 공동체에 대한 자유롭고 시급한 지원(긴급성)으로,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영감을 받고 공동체의 의지와 양심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로 이해되며, 이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에서 힘과 의욕을 얻게 됩니다(켈러<sup>12)</sup>, 1925년. 45쪽. 공식 번역 아님)”.

실천 학문으로서 이런 신학은 다양한 보조 학문<sup>13)</sup>(인문학)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고, 복지 국가 및 다른 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의 틀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을 지원하는 조직화된 활동들을 분석하여 카리타스 활동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수행합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접근방식과 관련하여서 “공동체적” 측면과 주어진 상황에서(복지 국가와 보조성의 원리에 따른 조정) “자유로운 개입<sup>14)</sup>”을 강조하는 것은 주목

9) Oriol Tàtaret, (Antoni M. Oriol Tàtaret) 몬시뇰. 쿠바 태생. 2000년 저서로 확인되는 것은 *Seis tesis básicas para dialogar católicamente en el marco del pluralismo religioso* (Six basic thesis for dialogue catholically in the context of religious pluralism. 종교 다원화의 맥락에서 가톨릭 교회의 대화를 위한 여섯 가지 기본 이론). 2011년 저서로 *La misión de Caritas a la luz de Novo Millennio Ineunte* (The mission of Caritas in light of Novo Millennio Ineunte. 교황 교서 「새천년기」의 빛에서 본 카리타스의 사명)이 있어, 관련성이 더 높긴 하지만 원문 확인이 안 되어 확인 필요.

10) Centres for Studies on Charity

11) a science of charity 사랑의 과학이라는 표현 대신 카리타스학으로 번역함

12) Franz Keller, 프라이부르크 대학 카리타스학 교수. 1925년 저서로 *Caritaswissenschaft* (카리타스학)이 있음

13) auxiliary science. 기존 학문 분야에 세부적인 보완의 역할을 하는 과학. 주로 역사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

14) free intervention 자의적인 개입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국가의 자의적인 개입을 제한한다는 맥락에서 쓰여서 여기서는 즉자적인 해석을 함.

할 만합니다. 독일 학계의 상황과 체험에 바탕을 둔 카리타스학은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신학계에서 가톨릭 사회 교리가 나타난 것처럼 독립된 분야로서 인식되어 카리타스학<sup>15)</sup>이라는 방향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사랑에 대한 다양한 신학적 정의들(폼페이, 1997년, 1999년, 2001년, 하스링거, 2004년, 2009년; 힐퍼트 1997년)<sup>16)</sup>을 조합해보면 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몇 가지 공통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들 모두 카리타스학이 특별한 역할이 있는 신학의 한 분야라는 점에 동의한다.
- 카리타스학은 실천 신학, 즉 행동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 카리타스 연구대상은 “교회”의 카리타스 실천에 관한 것이다.
- 다른 사회 과학이나 인문학 분야와 서로 소통한다.
- 연구에는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는 카리타스 활동 및 관련된 조직화된 활동 안에서 믿음과 전통이라는 관련 내용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이 포함된다.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메들린에서 처음 시작되어(1968년), 푸에블라(1979년), 가장 최근에는 아파레시다(2007년)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최종 문헌에서 표현되고 공유된 특정 경제, 정치, 사회 및 문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카리타스학을 명확히 밝히는 데 새로운 역동성이 생겨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급증하는 것을 근본 요인으로 인식하는 이런 신학은 자선적, 시혜적 사랑의 맥락 안에서 회복되었고 사랑의 이성(소브리노, 1992<sup>17)</sup>, 47쪽과 그 다음)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다시 재 이해되었습니다(스칸노네<sup>18)</sup>, 2000, 358쪽과 그 다음). 저는 여기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두 대륙에서도 자신들의 맥락에서 카리타스학을 발전시키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유사한 분석과 성찰을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15) science of charity 학문으로서 카리타스학인데 사랑학이라고 했을 때 한글에서 쓰이는 뜻이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어 카리타스학으로 번역함.

16) 폼페이 교수는 1997, 1999, 2001년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책을 집필하여 출처를 명기하기 어려움. 하스링거 교수는 2004년 ‘Was ist Caritaswissenschaft?(카리타스학이란 무엇인가)’ Theologie und Glaube(신학과 종교) 집필. 힐버트 교수는 1997년 Caritas und Sozialethik(카리타스 사회 윤리), Elemente einer theologischen Ethik des Helfens(도움의 신학적 윤리 요소) 집필.

17) intellectus amoris

18) Juan Carlos Scannone. 2000년에 Aportaciones de la Teología de la Liberación a la Teología de la Caridad(자선의 해방신학의 공헌)이라는 글을 Corintios XIII: Revista de teología y pastoral de la caridad (사랑의 신학과 사목 잡지)에 실음.



## 1. 2. 카리타스 활동에서 현재의 어려움들

오늘날의 세상에서 카리타스학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현대 사회에서 사랑(love/charity)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어려움에서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항). 이 용어가 남용되면서 폄하되고 있기에 이 안에 인간의 삶과 카리타스 활동이 포함되도록 이 개념이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기준들과 관련된 또 다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체계적인 모델을 통해 표현될 수 있어 디아코니아의 전형적인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스타니츠케, 1996년)<sup>19)</sup>. 법(정당한/부당한), 경제(이익/손해), 의학(병든/건강한), 과학(참/거짓), 정치(지배하기, 지배하지 않기) 등 다른 시스템들은 각자의 고유한 논리와 기능을 통해 상호 교환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무조건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는 사랑의 봉사의 논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중요치 않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시고(26-29항) 사랑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증대하는 세속주의와 행동주의”(37항)를 비판하셨으며,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며 오히려 기도가 사랑의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회칙 「진리안의 사랑」<sup>20)</sup>에서 베네딕토 16세는 사회의 선을 위한 해독제이자 변화를 일으키는 프로젝트로서 카리타스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근거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문 윤리의 구체적인 한 분야이자 사회과학 영역에서 하나의 방법론이 사회봉사 영역에서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해석학적 맥락을 만들어내어, 다른 것들에 대해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종교적인 기준(루만, 1973년)<sup>21)</sup>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해석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자율성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모델을 극복하는 것으로 제시된다면 세속화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카리타스학이 사랑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조적 불의가 세계화

---

19) Dierk Starnitzke, 1996년 저서로 *Diakonie als soziales System: Eine theologische Grundlegung diakonischer Praxis in Auseinandersetzung mit Niklaus Luhmann*(Diakonie as a social system: A theological foundation of diaconal practice in confrontation with Niklaus Luhmann. 사회 체계로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활동의 신학적 토대)가 있음.

20) Caritas in Veritate

21) Niklas Luhmann으로 추정됨. 1973년 저서로는 *Vertrauen. Ein Mechanismus der Reduktion sozialer Komplexität*(신뢰. 사회적 복잡성을 줄이는 메커니즘)과 Renate Mayntz와 공저한 *Personal im öffentlichen Dienst: Eintritt und Karrieren*, Baden-Baden: Nomos(사회봉사 활동가. 모집과 활동)이 있어 어느 것인지 명확치 않음.

된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 또 사회 복지가 프로그램화된 개입, 문제 해결, 특정 케이스들에 대한 관리 및 핵심적인 공동체 환경에서 떼어놓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틀 안에서 신학을 설명하려고 하게 되면 사회 참여 분야에서 신학의 부가가치를 정당화하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돌레젤, 2012; 크로카우어; 볼렌 & 레너, 2006, 스케일스 & 켈리, 2012; 신지, 2006)<sup>22)</sup>. 즉, 신학을 전문적인 사회 복지를 풍성하게 해주는 필요한 참고 학문<sup>23)</sup>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학문(이성의 통합)으로서의 발달을 전제하지만 카리타스학의 주요 특징은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즉, 카리타스학은 (실천적이며 실제 행동이나 실천 모델, 방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에 집중하며) 사회 복지를 위한 준거틀이 되고, (존재론적, 사회적 상황과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경험 등) 맥락에 따른 접근을 하며 실천적인 사목 신학과 함께(레치너, 2000, 219 참조)<sup>24)</sup> 본래 근본적이며 사랑(자비와 정의)이 넘칩니다.

### 1.3. “신데렐라 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 사랑의 신학의 성찰과 연구 그리고 교육을 위한 영역들의 수가 한정됩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만 보면, 바움가트너(2002년), 헤르만(1997), 하스링거(2009), 게릭(2015)과 같은 학자들은 신학대학에서 카리타스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성찰할 연구소의 수가 적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신학 대학 과목에서 필수과목이기는커녕 단순히 교수직을 위한 과목이거나 심지어 학업 계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리타스학이 신학 분야의 “신데렐라” 혹은 심지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측면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교황 교도권에 의한 회칙 발표로 쇄신된 카리타스학이 정당한 자리를 잡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여기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2) Doležal, J. 2012년 저서로는 Církevní sociální práce na pozadí encykliky Deus caritas est [Church Social Work in the Perspective of the Encyclical Deus caritas est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관점에서 본 교회 사회 복지]. 올로모우츠 대학에서 출판함.

Krockauer, R., Bohlen, S. & Lehner, M. (Eds.) 2006년에 Theologie und Sozialer Arbeit. Handbuch fürs Studium, Weiterbildung und Beruf.(신학과 사회 봉사. 연구와 교육, 직업 매뉴얼) 출판. München: Kösel.

Scales, T. L. & Kelly, M.S. (Eds.) 2012년에 공저로 Christianity and social work: Readings on the integration of Christian faith and social work practice(그리스도교와 사회 봉사 : 그리스도인 신앙과 사회 활동 실천의 통합에 대한 읽을 거리) 저술.

23) necessary science of reference

24) LECHNER, M. 2000년 저서로는 Theologie in der Sozialen Arbeit(사회 활동의 신학) : Begründung und Konzeption einer Theologie an Fachhochschulen für Soziale Arbeit. 뮌헨 돈보스코에서 출판. München: Don Bosco.

#### 1.4. 카리타스신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

카리타스 활동 즉 디아코니아는 현재 교파 전통<sup>25)</sup>과 저자들(루거, H & 시그리스트, C., 2014년 참조)<sup>26)</sup>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 신학적 토대가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다양한 토대들과 대화하면서 일치점이나 차이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통해 일하시는 믿음(갈라 5,6)의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여기 로마에서 개최된 다양한 회의(달 토소 & 셀렌버그, 2014년과 2015년; 셀렌버그 & 달 토소, 2016년)<sup>27)</sup>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글라첼 & 폼페이, 1991<sup>28)</sup>; 막스, 1999) 드러났듯이 사랑의 행위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성찰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도전은 카리타스학이나 교회의 사회교리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회문제와 관련한 「진리안의 사랑」 5항”의 개념을 볼 때 베네딕토 16세의 사회 회칙이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에 도전을 던졌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회칙은 진리의 인식에서 두 차원의 인식<sup>29)</sup>(자연법과 계시, 노텔레-월드퓨어, 1991년<sup>30)</sup>)을 사랑 안에서 신학적 지식의 원리를 찾는 것(Rubio de Urquía & Perez-Soba, 2014년; Perez-Soba, 2014년<sup>31)</sup>)을 포함하여 세 차원의 인식<sup>32)</sup>으로 완성하는 인식론적 표현으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Roos, 2015, 13쪽). 따라서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카리타스의 신학적 토대에 대한 질문들에 몇 가지 전략적 지침을 담아 답변하고 있습니다.

- a)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로스/아가페)의 일치가 사랑의 봉사의 주축임을 확인한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1항).
- b)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반한 사랑의 활동을 한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2-18항).
- c) 교회의 사랑 실천의 고유성을 제시한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 31항과 그 다음)

---

25) confessional tradition. 여기서는 여러 교파라는 의미임.

26) 두 사람의 2014년 공저는 Helfendes Handeln im Spannungsfeld theologischer Begründungssätze임.

27) 카리타스 연구소에서 펴냄. Soziallehre und Diakonie als kirchlicher Dienst an der Welt (세상에 대한 교회의 봉사로서 사회 교리와 디아코니아) 등

28) Hilfen und Anstöße der christlichen Soziallehre zur Qualifizierung des caritativen Dienstes der Kirche

29) duplex ordo cognitionis

30) “Duplex ordo cognitionis”. Zur systematischen Grundlegung einer Katholischen Soziallehre im Anspruch von Philosophie und Theologie.

31) Rubio de Urquía, R. & Perez-Soba, J. J. (Eds.) (2014). La Doctrina Social de la Iglesia. Estudios a la luz de la encíclica Caritas in veritate.

32) triplex ordo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sup>33)</sup>

## 2. 사랑의 신학적 토대: 디아코니아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실천적 성찰을 위해 “사랑”을 재평가하기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찾을 수 있는 카리타스학의 첫 번째 관점은 신학적, 인류학적, 실천적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특징을 분석하고,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관점은 조직화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사랑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2.1. 사랑: 카리타스학의 해석학적 관점(「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1항)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해석학적 관점은 우리에게 오늘날 서로 다른 문화, 종교, 언어에 따라 그 의미를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신학적 관점에서 특히 “사랑”의 의미론적 영역을 성찰하고 재발견하고 재평가하도록 다그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항).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사랑의 일치를 찾으려는 이런 신앙에 바탕을 둔 해석학을 통해 성삼위 하느님의 본질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핵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성경과 오늘날의 체험 안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다져진 믿음에 기반하여 신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사랑의 서로 다른 면들의 상호작용을 깊게 이해하려는 이런 지적인 노력 없이는 카리타스학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전통에 깊이 뿌리박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체험이 출발점이고, 따라서 아가페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느님으로 우리가 함께 받은 사랑으로 새로운 의미론적 영역을 갖게 됩니다. 아가페가 공동체를 만든 사랑이며 각 개인과 사회 존재를 변모시킵니다. 카리타스학은 신학적 접근과 사랑의 활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리타스학은 이런 해석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철학에서 쌓아온 성찰과 철학이 기여해온 것(힐데브란트<sup>34)</sup>, 1971년; 쿤<sup>35)</sup> 1975년, 롯츠<sup>36)</sup> 1979년; 피에퍼<sup>37)</sup> 1972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학(예를 들어 장론드<sup>38)</sup>, 2010년; 노베르<sup>39)</sup>, 2006년; 스톡<sup>40)</sup>, 2000

---

33) 이탈리아어 원문임.

34) Hildebrand

35) Kuhn

36) Lotz

37) Pieper

38) Jeanrond

39) Knauber

40) Stock

년; 비쉬마이어<sup>41)</sup>, 2015년), 심리학 (프롬, 1967년; 스텐버그<sup>42)</sup>, 1989년) 그리고 사회학 (벡 & 벡-게른샤임<sup>43)</sup>, 2001년; 쿠틀러 & 베헤르<sup>44)</sup>, 2014년; 루만<sup>45)</sup>, 1982년)과도 소통해야 합니다.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는 인간 본성 안에 새겨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이 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회 참여나 윤리라는 틀 안에서 “사랑”을 “연대”나 “정의”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 2.2. 그리스도교 신앙에 기반한 사랑의 봉사

회칙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사랑과 카리타스 활동 사이에 그리스도론에 있어 많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에 새겨져 있습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이런 창조론에 입각한 인류학적 관점은 다른 활동가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개방하게 합니다. 가난한 이들 안에 현존하신 예수님과 가난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 예수님(마태 25,40)을 통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융합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5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으로 정점을 이루는 겸손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주는 선물 안에 나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4항).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을 배웁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8항).

교황님은 이웃을 향한 이런 급진적인 형태의 사랑을 위해서는 성사 거행<sup>46)</sup>과 말씀 선포<sup>47)</sup>라는 교계의 두 측면과 핵심적인 관계를 맺는 영적 양분이 있어야 하고 카리타스학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영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멘케처럼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의 신학에 대한 전문가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에게는 그리스도교의 카리타스와 에로스 사랑을 결합하기 위해 구세주 예수님의 활동과 논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활동과 더불어 교회의 사랑은 우선적으로 십자가에 달리

---

41) Wischmeyer

42) Sternberg

43) Beck & Beck-Gernsheim

44) Kuchler & Beher

45) Luhmann

46) leiturgia

47) martyria



신 구세주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의 재현<sup>48)</sup>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원<sup>49)</sup>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내거나 연습하거나 그 결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전반적인 문화나 인간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키는 정치적인 아젠다나 이데올로기적인 아젠다만 남을 것입니다”(벤케, 2008, 57쪽. 비 공식 번역).

구체적인 공동체 정신<sup>50)</sup> 에토스는 내적 형제애를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현<sup>51)</sup>에 담겨있는 것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외적<sup>52)</sup>으로 확장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런 그리스도교론적 접근 방식을 통해 회칙의 두 번째 부분, 개종하라는 비판도 없고, 가난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0항). 코호 추기경의 2010년 및 2012년 저서는 회칙에 나타난 그리스도론 분석을 마무리합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기구들에서 하느님과 그리스도는 낯선 단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실, 이 두 단어가 교회의 사랑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카리타스<sup>53)</sup>의 힘은 모든 회원들과 협력자들의 믿음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베네딕토 16세, 2006b).

성삼위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는 회칙이 이렇듯 그리스도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회칙은 이를 신학적 토대로 처음 시작할 때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19항에서는 교회의 사랑의 활동에 대해 참고하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성은 성령론적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서 내적<sup>54)</sup>(공동체 일치) 외적<sup>55)</sup>(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 측면으로서 교회의 사랑이 생겨납니다. 사랑의 봉사 활동과 사랑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이러한 기반의 중요성을 여기서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 2.3. 교회의 사랑 실천의 고유한 형태<sup>56)</sup>(『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이후)

이 부분에서, 신학적 목표는 교회의 고유한 활동<sup>57)</sup>으로서 교회의 사회복지기구들이 사랑의 봉사에 개입을 하는 구체적인 특징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국가와

48) *representatio Christi*. *representatio*는 주로 형상,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현,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9) *assistance*

50) *ethos* 품성이나 품격에서 나오는 인간적 신뢰감. 정신. 일관되고 지속적인 특성.

51) *representatio Christi*

52) *ad extra* 외적으로

53) 기관으로서 카리타스 (가톨릭 사회복지회)

54) *ad intra* 내적으로

55) *ad extra* 외적으로

56)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의 제목

57) *opus proprium* 교회의 고유한 활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9항.

관련하여 사랑의 개입의 독립적인 면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약한 정부나 아주 부패한 정부가 있는 국가들에서는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 교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교회 구조를 발전을 위한 사목을 하는 것으로 바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상황을 살피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국가 사회 발전을 도울 수 있는지, 차선택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회칙 첫 부분에 설명된 하느님이신 아가페는 교회의 삼중 임무(말씀의 선포 kerygma-martyria, 성사 거행 leitourgia, 사랑의 섬김 diakonia)에서 표현된 교회의 본질인 아가페(「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5항)와 상응해야 합니다. 교황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의 활동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아가페(성사, 말씀, 선교, 조직 등)에 기반한 장소이자 관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개별 교회에서 보편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 자체가 그 주체이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2항). 개별 교회들 안에서 주교의 책임하에 벌어지는 봉사를 위한 교회 구조들은 자의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2012년)<sup>58)</sup>에 가장 깊이있게 설명된 사랑의 교회성<sup>59)</sup>에 정확히 상응해야 합니다. 이런 초기 접근은 그리스도의 몸이자 사랑과 자비의 성사인 교회, 즉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기관의 책임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특징들은 사랑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 3.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카리타스학은 하느님 사랑이라는 사랑의 근본적인 측면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카리타스학은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사랑의 봉사에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를 살아갈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질문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3.1. 카리타스학의 역사적 관점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의 20항에서 26항까지는 교회의 사랑의 활동의 역사적 뿌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카리타스학이 교회의 역사적 전통 안

58) Motu Proprio Intima Ecclesiae natura 사랑의 봉사에 관한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2012.11.11.

59) ecclesiality

에 기반하고 있고, 기반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사랑의 활동이라는 풍성한 전통이 지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다양한 전통은 박해받고, 버려지고, 인간적인 위기와 세상적인 위기를 겪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힘인 교회의 사랑을 다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역량을 나타냅니다. 산업화와 복지국가의 태동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20세기 초 독일에서 카리타스학이 재정립될 때 이 새로운 학문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가 그리스도교 사랑의 전통, 특히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연구였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런 19세기와 20세기의 유산과 저술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지식의 보고를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의 성취들을 업데이트하고, 최근 역사학 분야의 진보를 더해 오늘날 활동에서 이 역사적 의식과 그 중요성이 살아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3.2. 사랑의 일치(에로스+아가페)에서 비롯된 사랑의 활동이 갖는 연민의 관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강력하게 지지하신 에로스와 아가페의 일치(「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5항-6항)가 교계의 창의적 디아코니아의 구체적인 면면이 되어야 합니다(폼페이, 2006년, 2007년 56쪽과 그다음). 실제로 사랑의 개입에는 이성적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에로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에로스는 이미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11항). “하느님의 에로스는 태고적부터 있는 우주적 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사랑이며 착한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당해 상처를 입고 길 옆에 누워 있던 사람에게 몸을 숙였던 것처럼 인간을 향해 몸을 숙이시는 사랑입니다”(베네딕토 16세, 2006b).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하느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sup>60)</sup>입니다. 이런 내어주심은 사랑의 성사<sup>61)</sup>인 성찬례에 나타나며 기념됩니다. 성찬례의 변모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변모로 이해되는 사랑의 개입이라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에로스/아가페의 일치는 성령의 역동성 안에서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길잡이(내용), 물질적 지원이나 기술적으로 적절한 관심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정서적이며 물질적인(가난한 이들에게 마음을 주기<sup>62)</sup>)

60) oblativ love.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7항. On the other hand, man cannot live by oblativ, descending love alone. 인간은 주는 사랑, 내려오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61)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세계 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Sacramentum Caritatis), 교회생활과 사명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에 관하여, 2007년 2월 22일

62) miseri cor dare ← misericordia 아우구스티노가 말한 하느님의 자비(Misericordia divina) 참조. 라틴어 → 이탈리아어 → 영어 번역.

관계를 원합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4항). 여러분은 자신 안의 가능성을 믿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적 사랑의 믿음이며 믿음의 내용은 이런 자비로운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폼페이, 2006, 119쪽).

### 3.3. 마음의 양성 - 증인들의 사랑의 측면(「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 36항과 그 다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긴급한 요구와 특수한 상황에 무조건 응답하는 것에 이은 두 번째 특성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사랑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a). 동시에 회칙을 통해 마음을 양성할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개인적인 성장과 신앙에서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활동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카리타스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2부를 교황님께서 특히 강조하고 싶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진실한 방식으로 봉사하는 이런 관계 안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대 자신들의 활동을 강요하거나 가식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양성한다는 것은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음을 양성하는 것은 신앙에 힘입어 인격적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양성과 사랑의 관계에서 영적인 삶, 원천에서 양분을 얻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의 활동은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대가 없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랑의 속성을 증거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우리를 다그치는 그리스도의 사랑(2코린 5,14)을 더 잘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과업을 수행할 연구, 훈련자의 양성, 동반하는 과정, 공유할 공간, 자원 및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와 유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방대한 사랑의 봉사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문화를 만들거나 이런 체험을 하면서 협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충분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조 안에서도 개인적인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나눠야 하는지를 항상 제안할 수 있는 점진적인 복음화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이 서장에서 이 살아있는 유산에 통합되는 부분으로 카리타스의 성인들, 특히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40-42항)의 모범들을 절대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인들은 영적으로 우리와 동반하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고, 거기서 지속되는 조직들이 생겨나고 17세기에서부터 사랑의 활동을 해온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sup>63)</sup>처럼 카리스마가 쇄신됩니다.

---

63) the Society of Saint Vincenzo de Paoli 가난한 이들의 종이라고 불리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 3.4. 사랑의 개입에 관한 신학적 대화를 통해 교회 일치에 문을 엽

회칙은 다양한 교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공통의 그리스도교 및 성경 유산을 갖는 그리스도교 종파 안에서는, 심지어 교회의 문제까지 포함하여 이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협력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폼페이, 2006. 113쪽; 폼페이, 2007년 143쪽 및 그다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런 교회 일치를 위해 개신교의 디아코니아와 동방 정교회의 박애<sup>64)</sup> 등에도 개방하도록 초대하시는데 이는 그리스도교 교파 간 차원뿐만 아니라 연민과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모든 종교 간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의 연구 프로젝트나 회의들, 지역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 및 국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 4. 독립적인 신학 과학의 영역으로서 카리타스학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과 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황권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오늘날 교회의 복음화 사명의 핵심에 사랑이 있음을 구체화하여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의 선포, 성사 거행 및 사랑의 섬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통합하고 증거하려는 실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회칙을 깊이 성찰하면(「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26-29항) 정의와 사랑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개별적인 사랑의 활동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찰은 교회의 사회교리에 표현된 원칙들을 이용하여 양심이 이끄는 대로 공정한 질서를 수립한다는 교회의 사명과 국가나 정치 영역에서의 의무 사이에 식별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로운 활동(practice of justice)의 원리에 따라서 이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지만 앞선 장에서도 구체적인 특성으로 언급했듯이 교회에게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고유한 활동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는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에 대한 이 표현 역시 집중해서 성찰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카리타스<sup>65)</sup>나 사랑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내 다른 단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64) philanthropy

65) 기관으로서의 카리타스(가톨릭 사회복지회)

- a) 복잡한 사회 속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조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맥락 안에서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양성(「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31항a)에 효과적으로 응답한다.
- b)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봉사를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의미를 증거한다.
- c) 사랑의 개입과 조정을 주제로 다른 인문학 영역과 과학적인 기반 위에 대화해 나간다.
- d) (인식론적 원리로서 이해되는 사랑을) 하나의 구체적인 과학적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간다.
- e) 실천적인 체험의 바탕 위에서 신학과 교회에 방법론적 피드백을 준다.
- f) 사랑에 대한 신학과 카리타스에 대한 신학 사이에서 더 많은 학문간 협력이 일어나도록 한다.

여기서 나는 다음 장에 나오는 도표를 이용하여 카리타스학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도표는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 담긴 내용들을 성찰한 것과 프라이부르크<sup>66)</sup> 대학 및 올로모우츠 대학<sup>67)</sup>의 동료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개념도에서 카리타스학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삼위 하느님의 계시에서 시작하여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활동에 신학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임무(체계적인 신학)와 철학에 핵심적인 신학적 기반으로서 인류학 안에서 이 둘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줍니다. 이 부분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봉사를 위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도표는 존재론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 두가지 영역이 다양한 과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서로 관련된 과학 분야 및 기능과 맞물려 서로 연계되어 발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타 인문학 및 사회과학 영역과 사랑/자비의 본질에 관해 학문간, 활성화된 신학적 담화라는 작업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신학적 영역으로서 사랑/자비의 역할이나 개별적 또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변화시키는 에너지로서 사랑/자비의 범위, 내적인<sup>68)</sup> 사랑/자비의 인식론적 역량(믿음과 교회 현실에 따른)뿐만 아니라 외적인<sup>69)</sup> 사회적 분석 안에서 등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표는 동시에 통합적인 인류학적 전망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 사랑의 활동뿐만 아니라 성경적 표현과 체험 안에서 나타난 두가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그 목표들의 궤도를 다룹니다.

66) Freiburg. 독일 남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대학.

67) Olomouc. 체코 올로모우츠시에 소재한 종합대학.

68) ad intra

69) ad extra



〈도표: 카리타스학의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성삼위 공동체로서 하느님의 계시 신학과 철학(하느님에 대한 성찰과 가르침) 인류에 대한 고찰(인류에 대한 가르침)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봉사의 토대들			
사랑의 봉사의 실존적이며 존재론적 측면		사랑의 봉사의 윤리적 측면	
사랑에 대한 실천신학 구성적 기능 영적-존재적 돌봄과 치유	인문학 지원 기능 물리-의학적, 심리학적, 사회-물질적 돌봄과 치유	개인 윤리 길잡이 기능 개인적 도덕 길잡이	사회 윤리 동반 기능 생활 환경의 구조적 향상
진리 안의 사랑 - 사랑의 봉사와 공동체를 위한 신학의 방법론 사랑의 힘			
기초 과학 교의학, 영성사목, 선교	과학적 토대 자연 과학, 사회 과학 (약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 복지학 등)	과학적 토대 도덕 신학, 특히 덕 윤리	과학적 토대 가톨릭 사회교리와 사회 도덕(사회 회칙들)
목적 명상과 쇄신 - 살아갈 힘, 삶의 에너지, 용기, 동기 삶의 감각, - 삶의 개념, 삶에 대한 전망. 지지 체계 체험된 믿음 희망의 활동 사랑의 활동 교구 내에서 “사랑의 공동체” 혹은 대면 관계를 만들어감 - 삶을 나눔으로써 - 고통을 나눔으로써 - 신앙을 나눔으로써	목적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고 유지함 - 신체적 - 인지적 - 정신적 - 사회적 - 물질적 - 정치적	목적 사랑의 활동의 영역과 수혜자의 생활 방식에서 윤리적 한계를 미시체계 적으로 유지함 - 거짓말하지 않기 - 속이지 않기 - 착취하지 않기 - 학대하지 않기 - 파괴하지 않기	목적 삶의 방식을 위한 거시 체계적인 사회 원리들 - 공동선 - 연대 - 보조성 - 지속가능성 - 삶의 질서와 - 신체적 · 생물학적 · 사회적 · 경제적 · 사회적 생활 수준을 유지함
성경 자료 자비의 영적 활동과 성령의 선물, 그리고 “사랑의 송가” (1코린 13장)	성경 자료 자비에 기인하는 육체적 일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마태 25,31-46) 착한 사마리아인 (루카 10,25-37)	성경 자료 십계명	성경 자료 산상 설교(마태 5,3 - 12)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사목 활동			

이 도표는 기본적으로 카리타스학의 학문을 넘나드는 속성을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적 뿌리의 측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몸<sup>70)</sup>에서 시작하여 도착점은 최고의 활동들을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유기체의 구체적 활동들을 분석하여 사랑의 봉사가 점점 더 하느님 사랑의 진정한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

70) corpus 몸

## 복지 국가를 꿈꾸는 사람

- 이명묵

대담 / 신철민(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5년 넘게 매월 청계광장 들머리에서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복지국가 촛불을 들어온 사회복지사 이명묵을 만났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이하 ‘세밋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세밋사 소개를 부탁한다.

세밋사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의 줄임말로, 사민주의 복지 국가를 염원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운동 모임이다. 2012년 봄부터 모의를 하고 7월에 복지국가 촛불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직업상 늘 ‘복지 사회’와 ‘복지 국가’를 상상한다. 어떤 유형의 복지 사회와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숙제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나?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승자독식 경쟁 구도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이란 생존과 집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생애주기 사회 환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란 책 속의 활자일 뿐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인간으로서 존재론적 가치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 이전의) 상상 불가이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가족 단위 생존력을 극대화하려고 각자도생의 삶을 살게 되고 개인주의는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에 세밋사는 “이건 아니다!”라고 분개하고 한국 사회 문제를 인식론적으로 탐구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

동체성이 검증된 사민주의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북유럽권의 사민주의 복지 국가를 외래 수입품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동양사상은 이미 2,500년 전에 ‘대동 사회’라는 시스템을 설계했고 그러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기에 복지 국가 이야기는 오히려 뒤늦은 이슈일 수 있다.

세빛사는 한국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을 개발하고 주장하는 사회 행동을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까지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란다. 개인주의에서 빠져나와 국가복지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한 염원으로 세빛사는 오늘도 한국사회 복지 국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 세빛사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국경없는 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등. 뭐 이런 이름을 들을 때마다 사회복지사들 좀 쑥스럽지 않은가요?

세빛사를 시작한 이유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기는 하는데 복지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근본 해결책 마련에는 열정을 쏟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를 고민했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사회복지 공부와 실천이 대중적 방법론에 치우쳐서 그렇다고 보면서 1993년에 ‘인간과복지’ 출판사를 차려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과 정책 관련 책들을 펴냈다.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사상적으로 무장하고 움직이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이 좀 딱딱했나? 사회복지사들이 책을 잘 읽지 않더라고요. 좀 더 쉽게 접할 방법으로 ‘강연회’를 생각하게 되었다. 한 권의 책을 완독하고 이해하기까지는 결단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데 반해, 강연회는 다룰 수 있겠다 싶어 2011년에 ‘사회복지책마을’ 강연회를 시작했다. 애초 강연회 기획 내용은 사회복지보다는 문화 예술 역사 문학 철학 부문이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즐겁고 깊이 있게 하면서 일반 시민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 대부분의 강연은 복지 국가 주제로 채워졌다.

그것은 당시 한국사회에서 복지 국가 담론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정작 사회복지 어떤 단체에서도 이를 담아내질 않아 우선 ‘사회복지책마을’에서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갈증이 있었던지 복지 국가 강연회를 열면 많은 때는 200~300명도 오고, 평균 100명씩 모이곤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연을 듣기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다. “아 이것도 아닌가? 사회 행동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세빛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또 하나 이유는 복지국가소사이터티 활동의 자극이었다. 2011년에 당시 복지 국가 바람을 선도하던 복지국가소사이터티 내 복지국가운동본부 조직이 있었는데 나는 서울지역본부 운영위원장을 했었다. 복지국가소사이터티 안에 사회복지 전문가는 극소수이고 대개는 정치 경제 사회학자들과 정치인과 사회운동가들이었다. 서울지역운동본부 구성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아 사회복지사는 나 혼자였다. 세상이 온통 복지 국가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 국가 주체가 되어야 할 사회복지사들은 왜 아무도 나서질 않나? 복지국가소사이터티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몹시 부끄럽고 자책감마저 들었다. 운동본부 일을 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선 사회복지사들만의 복지 국가 운동 조직을 결성하여 사회복지사의 체면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이 2012년 세밋사 탄생으로 이어졌다.

### 세밋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외부에서는 나를 세밋사 대표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표 간사’라는 이름이 정확할 거다. 신생 NGO가 대개 그렇듯이 오만가지 일들을 다 하고 있다. 하는 일이 크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 사회문제 중 세밋사의 활동 의제를 선정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고 이슈 파이팅 전략 전술을 짜는 일이다. 또 하나는 앞의 일들의 실무로 활동 제안문이나 보도자료 작성, 기자회견이나 집회나 세미나에서 쓸 현수막이나 피켓을 디자인하고 현수막 집에 가서 찾아오는 일과 현장 설치 등 그 전후 홍보를 위한 홍보 문안 작성과 메일링 발송까지. 강연회를 열 때 강사와 장소 섭외, 홍보, 간식 준비까지. 듣고 보니 왜 대표가 아니고 ‘대표 간사’인지 이해가 되지요? 셋째는 복지 국가 운동 연대를 위해 다른 복지단체나 시민단체 또는 정치인이나 미디어 관계자를 만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복지 운동과 복지 국가 주제 강연 활동으로 복지 국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일을 한다.

### 세밋사에서 현재 집중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과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운동’이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은 “어린이의 생명을 더는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자”는 것이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의 병원비를 모금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이 되었는데, 실제 0~15세 어린이 750만 명의 입원 치료에 드는 비용은 5,152억 원임을 밝혀냈다. 그 규모는 국민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의 2.5%에 불과함에도 국가가 정책화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직무유기로 매우 부도덕하다 할 것이다. 저출산 시대라고 아우성치면서도 이미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의 ‘어이 상실’을 질타했다. 세밋사는



2015년부터 이 문제를 사회복지계와 공유하면서 2016년 60여 복지 시민단체와 함께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추진연대”를 발족했다. 이는 아이들의 건강권 즉 인권문제로, 사회복지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일반 사회문제를 갖고 연대체를 꾸린 것은 아마 최초일 것이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은 향후 전 국민 의료보장(무상의료) 시스템을 갖추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운동’은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권 차원의 인권운동이다.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이전, 5월부터 이 운동을 시작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의 시행은 노인복지와 사회보장 면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노후소득 보장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복지 국가 역사에 기록될 매우 의미 있는 기초연금 시행이 치명적인 잘못을 안고 있음을 외면할 수 없었다. 기초연금법은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도입하는 입법 취지인데,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못 받는 모순된 현실이다. 즉 기초연금법에 의해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 뒤에 기초연금을 무효화시키는 복지 행정 ‘작태’이다. 이는 국회가 제정한 기초연금법을 행정부의 시행령이 무력화시키는 폭력이고,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정부가 박탈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세밋사는 2014년 6월, 20여 복지 시민단체와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2018년에는 2014년에 시작했다가 여타 운동으로 주춤했던 복지 증세 운동을 재정비하여 활성화하려 한다. 이후 세밋사의 체력이 보강되면 “집 걱정 없는 세상” 주제의 주거권 운동과 “사교육 없는 세상” 주제의 청소년 행복권 운동 등을 고민하고 있다.

###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정 운동을 3년 넘게 해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세밋사가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일원으로 3년 넘게 활동한 것을 회상하면 참 쉽 없이 달려왔다고 본다. 광화문과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고, 종묘공원에서 만민공동회, 국회에서 토론회와 샤우팅 대회, 국회의원들과 법률개정안 발의,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총선에서 야 3당의 공약화까지. 충격적인 것은 총선에서 대외적으로 공



식 공약을 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선에서는 ‘보충성의 원리’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총선 공약을 파기한 점이다. 보장연대는 대선 직전 두 당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공약 회복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마이동풍이었다. 이에 우리는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기로 하고 11월 초에 헌법소원 92명의 당사자 청구인단을 결성하였고, 11월 하순에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3년이 빈곤 노인을 배제한 줬다 뺐는 기초연금 시행의 부도덕성과 부적정성을 알리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3년은 법적 논리를 다투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줬다 뺐는 기초연금이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면서 최빈곤 노인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평등권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을 침해했다고 보며, 인류 보편의 노후소득 보장권을 침해했다는 생각이다.

### 문재인케어로 명명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의 진행 상황은 어떤가?

‘줬다 뺐는 기초연금 개정 운동’이 매우 어려운 3년을 보냈고 앞으로 힘든 싸움을 각오한다면,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운동이었다. 2015년 12월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2016년 2월에 추진연대가 출범하고, 2017년 5월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 모두가 공약으로 받았고, 8월 ‘문재인 케어’에 반영되었으니 짧은 운동 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으니 요즘 말로 하자면 ‘가성비’ 높은 사회운동이라 볼 수 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의 핵심 주장은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자”였고,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누적 흑자 21조 원의 2.5%인 5,152억 원을 활용하여 0~15세 어린이의 입원치료비 전액을 국가 정책으로 부담하자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서, 일단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치료비 급여 부분 부모 부담을 기존 2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했고, 이는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750만 명 어린이와 부모가 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괄목할만한 변화이지만, 추진 연대가 애초 요구한 비급여 부분이 여전히 빠져 있기에 우리는 12월부터 시즌 2 운동을 시작한다. “시즌 2”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입원치료비에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하고, 급여 부문뿐만 아니라 예비급여까지 보장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획기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문제라 본다. 그것은 건강보험보장을 확대



정의당 협약

인 케어’에 반영되었으니 짧은 운동 기간에 많은 성과를 냈으니 요즘 말로 하자면 ‘가성비’ 높은 사회운동이라 볼 수 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의 핵심 주장은 “아이들의 병원비를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에서 책임지자”였고, 구체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누적 흑자 21조 원의 2.5%인 5,152억 원을 활용하여 0~15세 어린이의 입원치료비 전액을 국가 정책으로 부담하자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서, 일단 15세 이하 어린이의 입원치료비 급여 부분 부모 부담을 기존 20%에서 5%로 낮추겠다고 했고, 이는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750만 명 어린이와 부모가 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니 괄목할만한 변화이지만, 추진 연대가 애초 요구한 비급여 부분이 여전히 빠져 있기에 우리는 12월부터 시즌 2 운동을 시작한다. “시즌 2”는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도 입원치료비에서 외래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하고, 급여 부문뿐만 아니라 예비급여까지 보장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획기적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시간문제라 본다. 그것은 건강보험보장을 확대

하겠다는 문재인 장기 보건의료 정책과 철학이 같고, 무엇보다도 이 제안을 정책화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이 3천억 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린이 입원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데에 ‘5,152억 원’이면 된다는 발견보다 더 놀라운 발견이라고 여기는 것이 ‘3천억 원’ 숫자이다. 18세 미만 850만 명 어린이의 입원비 외래비 약값까지 또 예비급여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데에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만 작동시키면 3천억 원이면 된다는 사실. 시즌 2는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일이다. 잘 될 거라 본다.

### 세빛사이명목이 꿈꾸는 복지 국가의 모습은?

우리나라를 북유럽 복지 국가보다 더 좋은 복지 국가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 아이 키우는데 힘들지 않고, 아이들이 공부에 치이지 않고 마음껏 각자의 꿈을 준비할 수 있고, 사교육 없는 세상, 집 걱정 없는 세상,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 노후 걱정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복지 사회이고 복지 국가라 본다. 대동 사회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정책을 하나씩 쌓아 가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멋진 복지 국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 사회정책의 실현은 우리 사회에서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토론되고 합의 지점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통일의 길을 생각해야 한다. 휴전 상태에서의 복지 국가란 허무의 미완성이고 평화와 안녕이란 복지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한 규범을 세우고 사회적 신뢰를 쌓고 사회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는 그 노정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왜? 복지 사회와 복지 국가란 명제 앞에서 직업적 본능적 사명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면 바로 사회복지사 집단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 사회복지사 인재상이 있는지?

“제·멋·대·로” 인재상이다. ‘제’는 제대로 일하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 개인과 사회복지시설 조직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에 윤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직업적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멋’은 신명 나게 일하자는 것이다. 어떤 직업인이나 그 사람이 자기 일에 몰입하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참 멋있어 보이지 않는가. ‘대’는 대범하게 일하자는 것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넓게 두루 살피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일하자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지금 이대로”의 것에 한정 짓기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이 있는 그림을 염두에 두면서 일하면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것이다. ‘로’는 한자의 ‘勞’에서 뜻을 가져왔는데 ‘勞’를 보면 위에는 불 ‘火’자가 두 개 있고 아래에는 힘 ‘力’자가 있다. 즉 일하되 불같은 열정으로 힘껏 일하자는 것이다. 말은 일에 내 이름 석 자를 거는 거지요.

### 사회복지사가 핵심역량으로 연마하길 바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지식, 철학, 운동, 영성” 네 가지 역량이다. 사회복지사는 지식인인가, 지식인이 되어야 하는가, 지식인이려면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지식은 어떤 지식이고 어느 수준의 지식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지식인인가? 지성인인가? 아니면 그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가.

철학적 질문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나는 왜 사회복지를 하는가, 우리 시설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직면하는 복지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그 구조는 어떻게, 문제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성의 탐구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를 하다 보면 복지 문제와 얽힌 사회문제의 가치를 논할 때가 있다. 정의와 부정의, 선과 악, 의와 사, 인권과 반인권 등.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근거를 논쟁하는 도덕철학에 접어들게 되지요. 이러한 인식론적 존재론적 가치론적 성찰을 하다 보면 진선미의 경지와 그 합일의 지경에 이르러 사회복지 실천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철학자가 됩니다.

사회복지현장은 복지정책의 구속을 받고,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의 각각의 규범과 사회철학에 근거한 사회정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일련의 과정은 각 규범과 철학의 사회(철학)운동 역동이다. 사회복지사가 이 역동의 흐름 속에서 치열한 토론자 구실을 감당하므로 시대 정신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겐 사회운동가의 구실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동기는 퇴색되기 쉽고 집단에서는 경시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격려받지 못할뿐더러 때로는 다른 가치 체계로부터 매도당하기도 한다. 사랑이 영성의 단계로 승화되기에는 지속적인 자기 수련과 집단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 끝내 도달할 수 있다면 성자의 경지일진데.

###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Social Laborer, Social Worker, Social Designer, Social Artist” 이런 말들에서 다름이 있을 것이다. Social Laborer는 단순 사회복지종사자를 말한다. 이때에는 근로기준법이 헌법이다. 일한 만큼 급여나 수당을 받

아야 하고, 급여나 수당만큼만 일한다는 사고방식이다. Social Worker는 Social Laborer의 정체성에 '사명'이 덧붙여지고 이때에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선서문이 헌법이다. 타율적인 사명은 괴로운 희생이지만 자율적인 사명은 즐거운 헌신이 될 수 있다. Social Laborer에게 굳이 요구되지 않는 “지식, 철학, 운동, 영성”이 미션으로 다가온다. Social Designer는 우리 사회를 복지 사회로 우리나라를 복지 국가로 바꾸는 설계를 하는 단계이다. 복지 유토피아 설계자라 보면 될까? 사회정책 관점이 요구되고 그것의 근거인 철학적 체계를 세우는 일과 현실에 구현하는 사회(철학)운동이 요구된다. Social Artist는 사회복지사가 철학자와 사회운동가와 성자의 길을 걷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공공선에 투입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일 것이다.

사회복지사 자신이 어떤 사회복지사의 길을 걸을 것인가는 각자의 인생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



## 특화된 교구 사회복지회(국) 소식:



### 한 지붕 세 가족 :

- 구리EXODUS (이주민 상담소)
- 천국의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 토평동 성당

김종민 신부 |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

사회복지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천주교 신자였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주일미사는 빠짐없이 참례하는 제법 열심히 하는 교우셨습니다. 이분이 자기 본당에 관한 얘길 종종 하셨는데, 그때마다 불만 섞인 안타까움을 토로하곤 하셨습니다. ‘본당’이라는 곳만큼 사회복지를 위한 자원이 집약되는 곳도 없는데, 왜 정작 본당에서는 그러한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신자 입장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쉬움입니다. 본당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선의를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영신적 위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본당 사제와 사목회 등의 조직이 이 풍부한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연계시켜 주고자 한다면, 본당은 최고의 복지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참으로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란 특정 영역과 특정 분야에서 단독으로 수행해서는 효율과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가 너도 돕고 나도 돕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서로 돕는 이들 가운데 ‘더 잘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성원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는 일입니다. 본당이야말로 ‘더 잘 도울 수 있는’ 주체인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의정부교구 구리시 교문동의 어느 주택가 골목엔 ‘구리EXODUS’(소장 최재영 요한 신부)라는 이주민 상담소가 있습니다. 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으로 교구 설립 초기부터 많은 일을 해 오던 상담소로서, 이 상담소의 건물은 교구 소유의 3층짜리 소형 빌라입니다. 2층은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3층은 식당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건물 1층엔 ‘천국의 아이들’(센터장 백명순 글라라 수녀)이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주민

상담소의 부설은 아닙니다. ‘천국의 아이들’은 사회복지법인 대건 카리타스의 직영시설입니다. 요즘 어느 지역아동센터를 가 봐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자연스럽게, 행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두 시설, 구리EXODUS와 천국의 아이들은 협력을 넘어서 공생의 관계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리EXODUS의 소장 최재영 신부는 인근에 있는 토평동 성당 사제관에서 기거합니다. 자연스럽게 본당 주임신부와 서로의 사목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토평동 주임 김승한 신부는 단순히 사제관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구리EXODUS의 적극적인 협력자로 자처하며 구리EXODUS와 천국의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평동 본당이 일방적인 시혜자의 입장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당은 교우들에게 애덕 실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실제로 교우들은 선의의 봉사 활동에 목말라 합니다. 토평동 성당은 구리EXODUS와 천국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일을 통해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천국의 아이들 바자회



바자회

오래전부터 천국의 아이들에서는 행사나 물품 수송에 필요한 승합차가 필요하였습니다.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나 고민하던 중 외부에서 다량의 물품 후원을 희망하는 분이 계셨고, 그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바자회를 갑자기 하려니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자회를 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고, 홍보할 방법도 대상도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

다. 천국의 아이들은 윗집에 있는 구리EXODUS에 이 문제를 상의했고, 구리EXODUS 최재영 신부는 이 문제를 본인이 거주하는 토평동 성당 사제와 상의했습니다.

토평동 성당 사제는 함께 사는 신부의 요청에 기꺼이 화답했고, ‘천국의 아이들’ 바자회는 토평동 성당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장소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토평동 교우들은 바자회에 필요한 많은 인력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리EXODUS의 최재영 신부는 인근 지구 내 본당들에도 협조를 구하여 바자회 티켓까지 대신 판매해주었습니다.



에당초 계획에도 없었던 지역아동센터의 바자회였지만, 이렇듯 성황리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다문화 가정 체육대회



체육대회

구리EXODUS에서는 해마다 가을에 다문화 가정 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구리EXODUS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뿐 아니라, 구리 지역의 많은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모여 우의를 다지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체육대회인 만큼 어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합니다. 물론 ‘천국의 아이들’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다른 많

은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EXODUS에서 주최하는 행사라는 것을 아는지 ‘천국의 아이들’ 소속 아이들이 가장 신이 나서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엔 스태프로 봉사하는 일손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토평동 성당 교우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했고, 덕분에 다문화 가정과 얼굴도 익히고 친분도 생긴 분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체육대회 때는 토평동 본당에서 경품으로 자전거를 10대나 기증했습니다. 이렇듯 본당의 지원과 협조를 통해 구리EXODUS의 다문화 체육대회는 풍성한 동네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문화 가정 체육대회는 앞으로 계속 열릴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체육대회를 거행해 온 체육관을 지자체에서 앞으로 대여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뜻깊은 행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방법이 생길 바랍시다.

## 한글교실

외국인들이 낯선 땅에 와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피부로 체감되는 장벽은 바로 언어와 문자의 장벽입니다. 구리EXODUS에서는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열어 그분들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EXODUS에



한글교실

는 사무실도 협소하고 짐도 많아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마침 아랫집인 ‘천국의 아이들’은 오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아이들은 기꺼이 자기네 공간을 한글교실을 위한 공부방으로 개방해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린 엄마들은 아이 때문에 한글교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

었습니다. 이에 다시 토평동 성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당에서 레지오 단원들이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레지오에서 아이 돌봄 봉사를 합니다. 그동안 엄마들은 안심하고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합니다.

종종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로부터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사회복지란 단순히 휴머니즘에 기초한 연대나 협력의 행위를 진작 넘어서서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테두리를 잘 지켜내는 역할도 필수적입니다. 사회복지란 양쪽의 날개를 달고 나는 새와 같습니다. 한쪽은 제도와 법률이라는 날개이고, 또 한쪽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날개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사회복지란 제도와 법률 이전에 연대와 협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제도 법률적인 차원의 지속적인 확장과 성숙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제도와 법률이 미처 커버하지 못해 생기는 공백은 현장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메워야 합니다. 가톨릭교회가 행하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본당은, 법과 제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본질에만 충실하면서 애덕을 실천할 수 있는 거점이자 가교입니다. 더 많은 본당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제 역할을 인식하고 자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 신명난 장애 아동의 자람터, 생태적 감수성이 가득한 ‘베타니아공동체’



김종호 바오로 | 베타니아공동체 큰 머슴

**자연이 아이들의 스승이 되게 하라!**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아이들!**  
**베타니아는 신명나는 아이들의 자람터입니다.**

‘베타니아<sup>1)</sup>공동체’는 1997년 광주·전남지역에 최초로 장애 아동 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발하여 장애 청소년 주간 보호 시설, 아동 발달 지원센터, 숲학교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 물품 판매와 착한 먹거리를 만드는 ‘에코베타니아(주)’를 설립, 독립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250여 명(일반 아동 40여 명 포함)에 이르고 80여 명의 교직원 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베타니아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다름과 같음의 공동체”, “생명과 선교의 공동체”를 설립이념으로 창립되었는데, 2005년에는 “생태복지의 실천”을 추가하면서 ‘베타니아공동체’가 새로 태어나는(born again) 계기가 되었습니다.

---

1) 베타니아: 예루살렘에서 3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동네 지명이지만,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란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자주 들르셨던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가 사는 마을이었기에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공동체 명으로 선택함.

법인을 운영하면서 고객과 이해 관계자,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생태적 감수성이 가득한 사회복지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타니아공동체’는 2006년부터 시작된 베타니아의 제1차 비전, “2015년까지 생태적 통합 보육 서비스 모델 구축” 체계 10년 운영과 2016년부터 다시 시작된 제2차 비전, “2025년까지 생태복지(교육)의 글로벌 허브 기관이 된다” 체계에서 핵심 가치와 운영전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타니아 어린이 인권 강령, 베타니아 윤리 헌장, 윤리 경영 규정, 생태와 윤리경영위원회(직원복지위원회 겸), 노사협의회(인사위원회 겸) 등의 운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사회복지를 실천하며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sup>2)</sup> 가입,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생태 유아교육, 숲(대안) 교육, 환경(공동의 집)에 관한 「찬미받으소서」(프란치스코 교황 회칙)를 전 직원들과 함께 완독하였고, 구체적인 실천과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운영계획서, 2005-2017).

이 글은 ‘베타니아공동체’의 설립 운영 철학에 따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사회복지 현장인 부설 기관(시설)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생태와 생명의 공동체

‘베타니아공동체’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생태’와 ‘생명’입니다.

‘베타니아공동체’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생태적 모습으로

---

2) UN Global Compact : UN 산하 기구로서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CEO들이 지속가능성과 시민의식을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는 리더십 플랫폼.

회복하기 위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야 하며, 고객과 직원들의 인권도 생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설기관들의 모든 교육과 재활, 훈련 프로그램들은 모두 ‘생명’과 ‘생태’의 핵심가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곧 ‘참생명’이심을 베타니아의 DNA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 ■ 생태유아교육과 숲교육 기반 - ‘숲에서 매일 기적을 봅니다.’

베타니아의 모든 교육 실천은 아이들의 생명과 아이다움, 건강을 살려내기 위해서 생태(자연주의) 유아교육을 기초로 환경교육, 자연교육, 생명교육, 발도르프교육, 숲교육과 특수교육, 치료교육, 재활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의 7가지 요소(국가인권위원회 용역연구, 2011)를 가장 잘 구현할 방법으로 우리 기관의 모든 아동, 청소년들은 1일 1회 이상 자연(숲)으로 나가야 합니다. 숲은 생명이고, 위대한 스승이고, 보물 창고이고, 종합 예술이고, 백과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숲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a forest where gods live)이고, 햇빛, 신선한 공기라는 좋은 밥을 먹이기 위해서이고, 놀이 중심의 아동 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 ■ 유기농 먹거리와 100% 슬로 푸드 실천

베타니아의 먹거리는 기존 상품이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를 사용하지 않고, 식사는 물론이고 간식까지도 유기농(저공해) 식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조리하고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좋은 소금(구운 천일염), 좋은 물(이온수)을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 ■ 「참미밭으소서」의 실천운동과 환경 교육

베타니아의 핵심가치인 ‘생태’와 ‘생명’은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베타니아 전 직원들은 ‘자신의 탄소 포인트를 매시간, 매일 적립하는 것’을 첫째로 10가지의 환경 관련 ‘내가 먼저 First 베타니아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자, 연등천<sup>3)</sup>을 살리자’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물의 날’에는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병들어 가는 여수 시민들의 강인 연등천을 맑게 개선하자라는 캠페인을 하는데, EM<sup>4)</sup>(유용한 미생물) 흙 공 5,000개와 25만ml의 활성액을 살포하며 12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3) 여수 시내 중심지를 흐르고 있는 유일한 천으로 오염에 의한 악취와 기형적인 물고기들이 살고 있음

4) EM(Effective Micro-organisms): 수질 정화, 철산화 방지, 곰팡이 제거, 우수한 퇴비 효능, 악취 제거, 노화 방지, 아토피 재생 효과 등 유용한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액



EM 제품 사용 생활화는 부설 기관별 지속적인 환경 프로그램 활동에서도, 베타니아 모든 시설물의 청소, 세척은 물론이고 텃밭 농작물 재배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매기관 에코베타니아의 핵심 판매품목으로 EM 관련 다양한 상품들은 OEM 방식으로 제조하여 지역사회에 홍보, 판매,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여수에 푸른 옷을 입혀요!’라는 식목행사를 통하여 매년 300~1,000여 그루의 나무를 아동들과 부모, 시민들이 함께 심고 있으며, 2014년에는 ‘한국숲학교연구소’를 설립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꼬꼬마 환경 스토리텔러’는 환경보전협회의 지원으로 실시된 환경 교육 프로그램! 인형극을 통한 환경 이야기는 전기, 토양, 공기 각 3가지 주제를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인형극을 통해 배운 내용을 스토리북을 통해 직접 체험해보고 지역사회 주민과 아동들에게도 인형극을 통해 함께 나누는 재능기부 활동이기도 합니다.



### ■ 세상의 모든 자연이 아이들의 교실이 되고 교사가 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베타니아 아이들! 베타니아 아이들은 1년 365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벗짚 사이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잔디밭을 침대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단잠을 자기도 합니다. 베타니아 아동들은 교실보다 자연 속에서 숨쉬기를 좋아합니다.

## 2. 다름과 같음의 공동체

‘베타니아공동체’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다름’과 ‘같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들입니다.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태어나고 자라고 사는 곳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같은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인격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들입니다. 한 우주 안에서 사는 게 같고, 3차원에서 사는 게 같고, 인간(호모 사피엔스)이라는 종이 같고, 희로애락, 생로병사 하는 것이 같습니다.



따라서, 다름과 같음은 동전의 양면이요, 손등과 손바닥 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같은 존재입니다. 장



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다름”이 아닌 “같음”인 것이고, 너와 나, 우리 모두도 “같음”이 아닌 “다름”인 것입니다. 인간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우리는 다른 능력을 갖춘(Differently Abled) 같은 존재(Equal Existence)입니다.

### ■ 매일 아침의 기도 모임, 영성과 열정의 산실

‘베타니아공동체’는 기관 운영에서도, 직원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영성은 초대 교회 모습(예수님과 제자, 성도의 공동체)을 지향합니다.

20년째 매일 교직원 조회 시간에 아침 기도 모임으로 하루를 열어 가는데, ‘다름’과 ‘같음’의 신비를 나누는 시간이며, 베타니아의 정신과 열정의 발전소(산실)가 되고 있습니다.

### ■ 베타니아 아동 인권 - 틀림이 아닌 다름이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헌장보다 더 수준 높은 베타니아 ‘아동 인권 강령’은 2009년에 전 직원들이 제정하여 이용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매주 1회 전 직원 낭독).

‘베타니아공동체’는 장애 아동 전문 종합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어 장애 아동의 인권 관련 프로그램들을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교직원<sup>5)</sup>들을 위한 인권 - 사회복지 실천의 동반자

교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역량 강화 지원, 교직원 평가와 승급 시스템, 우수 교직원 지원 프로그램, 육아 휴직제, 산전후 탄력근무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직원들의 상조회(나서메), 노사협의회(인사위원회 겸)가 2002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당사자들이 포상과 징계 및 승진 등 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2012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선정).

5) 교직원 : 유아(보육)교사, 특수교사, 각 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운전원, 취사원, 관리인

매년 교직원 교육 훈련과 연수 지원은 20여 회에 이르고, 9회째 ‘교직원 임상 사례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통한 출판기념회와 우수 연구사례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 ■ 법인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하여

법인의 윤리 경영 규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향상(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윤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3.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베타니아공동체’의 세 번째 핵심가치는 ‘참 섬김’과 ‘참 나눔’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사랑을 지향합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요한 13,14),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28)고 하신 그 모범을 따른 ‘참 섬김’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세상의 자원봉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건강, 시간, 지식, 재능, 재물을 일부러 떼어서 나누는 ‘참 나눔’은 자신을 송두리째 나누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 ■ 고객<sup>6)</sup>을 섬기고 나누기 위해 걸언(乞言)<sup>7)</sup>해야 합니다.

고객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sup>8)</sup>에게도, 사회생활에서도 걸언(乞言)해야 합니다.

6) 베타니아 고객: 이용 아동, 청소년과 학부모,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이해 관계자

7) 걸언: 진정성으로 인사하고, 여쭙고, 의견을 듣고, 부탁하고, 감사하기(중증 치매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에게도)

8) 이해 관계자: 조직의 활동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직·간접으로 주고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고객을 포함하여 교직원, 임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각 위원, 정부, 지자체, 협력기관, 미디어 등

각 기관의 프로그램, 단위사업의 계획(기획) · 실천 · 평가, 법인의 규정 제정, 직원들의 의사결정, 회의, 근무평가 등에서도 적용합니다.

#### ■ 참섬김, 참나눔 - 베타니아의 사회적 책임(CSR)<sup>9)</sup>

‘베타니아공동체’는 사회 공헌을 넘어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기 위해 지역 주민, 기업체 등과 함께 ‘여수시 연등천 살리기 환경캠페인’과 ‘생명’과 ‘환경’을 주제로 9년째 참살이 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수 시민 행사에 베타니아 환경 부스를 설치하고 수백 개의 EM 활성액 샘플을 나누며, 실제 EM 활성액 만들기 체험 학습을 하면서 홍보하고 있고, EM 관련 특강 요청에는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년 10건 내외의 프로포절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 계층과 장애 아동 가족, 일반 아동들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생애 어울림 한마당, 둔병도 섬 복지(사물놀이, 환경 정화 활동), 바자회 수익 나눔 활동(소외 계층 가족) 등 크고 작은 사업들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2006년부터 필리핀 극빈 아동 3명을 국제 아동 구호단체 ‘PLAN’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는 교직원 급여 꼬리 떼기 모금(연간 100여만 원)과 원내 어린이들의 폐지 수집 판매금(연간 40여만 원)을 필리핀 극빈 아동 후원금으로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 ■ 국제적 네트워크 - 베타니아의 사회적 책임(CSR).

‘베타니아공동체’는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의 세계인(지구촌)으로 참여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2012년 10월 25일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고, 작은 도시 여수에 소재한 작은 기관이지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격년마다 성과보고서(COP)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9)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을 넘어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강조함(CARROL).

## ■ 참나눔 - 다양한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매년 1,000여 명의 방문자를 맞이합니다. 2012년에는 여수엑스포가 있어 전국 382개 기관(시설, 단체, 학교)에서 1,820여 명이 방문하였고, 2013~2016년에도 매년 평균 1,000여 명(300여 개소)이 베타니아를 찾아 통합보육과 생태주의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베타니아공동체’에는 매년 특별한 손님들이 방문하는데, 일본 NHK-TV, KBS-TV, MBC-TV, EBS-TV, 참새 TV, 한국일보, 동부매일 등의 취재로 일본과 전국에 방영, 보도되었습니다.

동종 NPO와의 네트워크는 베타니아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파트너로서 대표적인 기관(단체)은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사)한국숲유치원협회’, ‘환경교육네트워크’, ‘여수시법인이린이집연합회’, ‘여수시사회복지시설연합회’, ‘여수시장애인연합회’,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입니다.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운영, e뉴스레터(월 2회), 소식지(연 2회) 배부(1,000여 곳), TV 및 언론매체(연 10회 내외), 방문자 및 외부 특강 및 사례발표(연 50회 이상) 등을 통한 재능 기부 및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참나눔 - 투명성과 윤리경영

‘베타니아공동체’는 윤리 경영 규정과 윤리 헌장을 제정하여 시행(2009. 3. 1.)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은 베타니아 윤리헌장을 전 교직원이 낭독하면서 그 정신과 내용을 헌장에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법인 운영에서 ‘참나눔’의 최우선적 가치로서 운영함으로써 1997년 법인 설립과 어린이집 신축에서 2억 75백만 원의 자부담을 시작으로 2001년 섬김관 증축에 1억 26백만 원, 2003~2005년 토지구매와 나눔관 신축에 10억 50백만 원, 2008년 도예공방 증축과 섬김관 리모델링 공사에 1억 30백만 원을 국가 예산 지원 전혀 없이 은인들과 법인의 자부담으로 해결한 ‘베타니아공동체’입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수시, 전라남도의 정기 점검 및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원 감사에서도 20년 동안 한 번도 국고보조금(회계)에 대한 환수나 지적도 받은 바 없다는 것은 ‘베타니아공동체’의 자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타니아복지재단의 후원금은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10% 내외(3억여 원)로 유지되고 있고 그중에 40~50% 정도는 외부 프로포절 공모에서 충당해 왔으며, 은인(후원자)들의 도움과 기부가 없었다면 베타니아는 존재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놀라운 생산적 사업활동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타니아공동체’의 운영을 통해서 매년 유형, 무형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산출해 보았는데, 경제적 직접 효과만 해도 국고 보조 지원 투자 대비 200% 이상, 사회적 비용(미래 비용) 절감 효과도 매년 6억 원 이상이었으며, 환경보전 효과 등 간접 효과는 수십억 원으로 산정되어 1개의 사회복지법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윤리적, 인권 친화적인 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그 영향과 결과의 열매는 대단히 놀라운 생산적 복지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2012-15년 베타니아 성과보고서).

‘베타니아공동체’는 UN Global Compact 회원기관으로서, ‘2025년까지 생태복지(교육)의 글로벌 허브 기관이 된다’는 제2차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상을 변모시키는 2030 지속 가능 발전 아젠다’인 UN의 SDGs<sup>10)</sup> 중 4~5개 목표를 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회칙 8항)라고 지적하시면서 현대사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의 말씀을 빌려 생태적 회개를 촉구하셨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회칙 3항 제목)라고 하였기에 그리스도인의 사회복지지는 인간 생태론의 윤리적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타니아공동체’의 운영 철학에 따른 3개 영역의 그리스도인 사회복지 실천은 2012년 보건복지부의 인성교육 최우수 어린이집 선정(광역시에 1개소)과 2015년 법인의 교육 기부 기관 지정(교육부), 산림청의 산림교육 인증(숲을품은아이들)으로, 2016년에는 UNESCO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 프로젝트(숲을품은아이들)로 인증받고 있어서 국가 기관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제70차 유엔총회(2015. 9.)에서 채택한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으로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각 목표에 연계된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 부설기관 소개

### • ‘베타니아공동체’ 중심축, 법인 사무국

각 부설기관 특성에 맞는 외부 프로포절 사업을 통한 지원,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성과 평가, 노사협의회 운영, 교직원 종합 근무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 운영, 생태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자원 개발 및 홍보, 자원봉사자 개발, 견학 목적 방문자 교육과 안내, 거버넌스 활동과 지역사회 공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 • 장애 아동의 신명난 자람터, 베타니아특수어린이집

통합 아동(70명의 장애 아동과 40여 명의 일반 유아)을 위한 다양한 생태적 보육 활동 서비스, 숲유치원 프로그램, 장애 아동의 재활치료(9개 치료실 운영)를 하고 있으며, 매년 사례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장애 청소년들의 자립을 꿈꾸는 주간보호시설, 작은나루

20명의 장애 청소년을 위한 주간 보호 서비스(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지도, 생태 프로그램, 재활훈련, 특기 활동, 직업훈련, 성교육, 안전교육 등)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장애 영유아 조기발견과 재활치료서비스, 아동발달지원센터

130여 명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과 비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 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언어치료, 운동치료, 감각통합,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지원 및 정보제공과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 생태(자연주의) 숲교육 지원, 숲학교연구소

2014년부터 연구소 운영을 통하여 숲에서 작은 꿈을 디자인하기 시작하였으며, 숲교육 연구와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환경과 먹거리 수호, 사회적기업 에코베타니아(주)

착한 먹거리(제과제빵, 두부 등)와 환경 물품 제조, 판매와 로컬 푸드 납품을 통한 장애인, 노약자 일자리,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경운동과 재활훈련 공간 제공을 수행합니다. ✱





## ‘스트레스와 MBSR’

박문수 | 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

### 시작하면서

이 가운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이 계신가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나 받는지 한 번 시험해보겠습니다.

먼저, 5분 동안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침묵) 자, 5분이 지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잡념이 전혀 들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다들 오만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눈을 뜨고 있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의력이 떨어지면, 즉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이처럼 잡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험에서는 모두 스트레스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젖가슴 위를 가로로 일직선으로 긋고 한 가운데인 갈비뼈 부분을 눌러 보겠습니다. 여성들만 해보십시오. 어떠셨습니까? 많이들 아프시죠? 대자마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여럿 계시네요. 이 부위는 한방에서 울화(鬱火)가 모이는 혈(穴) 자리라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상태와 사회복지 실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만나 본 수많은 종사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과도한 스트레스는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고 궁극에는 소진(燒盡)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는 자신은 물론 여러분이 상대하는 클라이언트, 동료들에게 영향을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전국의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심과 영성 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피경에서 한 강의를 게재하는 난이다. 이 글은 지난 2017년 제1차 피경(3. 29.~31., 경하상교육회관)과 제3차 피경(5. 16.~18., 수지 성모교육원)에서 있었던 박문수 박사의 피경 강의 내용이다.

줍니다. 우선 자신한테는 일에 대한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출근도 일도 억지로 하거나 성의 없이 하게 되니 남은 둘째 치고 자신에게 못 할 것입니다. 이 상태가 더 진전되면 소진이 오고, 소진은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둘째로, 클라이언트에게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들을 형식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불친절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태는 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팀워크가 중요한 조직에서 자신은 물론 동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만큼 직장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 생활하거나 마지 못해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만족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무기력증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방법을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서는 스트레스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가 많은 이들은 이를 완화하고, 적은 이들은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사전에 대처해보려 합니다.

이 방법이 영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소개하는 MBSR은 가톨릭의 영성훈련 방법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을 의학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명상법에 불과합니다. 가톨릭 사회복지 종사자 이만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자가 아닌 상황에서 가톨릭의 원칙만을 고집하기 어려워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비신자들을 배려해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방법을 만성 통증, 만성질환자 치료, 과도한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환자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 완화와 예방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영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드려야겠네요. 영성에 대한 신학적, 이론적 논의는 지양하고 ‘영성 수련의 결과로 드러나는 행위’라는 관점으로 한정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달라 무려 250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하나 같이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행위’입니다. 그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든 유일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달라진 행동을 보고 그의 영성 상태와 진실성을 확인하게 되지요. 저도 이렇게 이해하려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심과 영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나운 말과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달라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번 연수의 경우에는 스트

레스를 줄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클라이언트와 동료들에게 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자세 혹은 태도를 대충 영성이라 정의해보겠습니다.

## 1.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말은 한스 셀리에(Hans Selye) 박사가 처음 사용하여 널리 유행시켰습니다. 스트레스는 ‘내부 반응(예, 나 스트레스 받았어)’과 ‘외부 자극(예, 오는 길에 미친 개를 만났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셀리에 박사는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규정하였고, 반응을 일으키는 자극 혹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스트레스 유발자극(Stressor)’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어떤 압력이나 요구에 대한 유기체(인간)의 불특정 반응”이라 정의하였습니다.

### 스트레스 유발자극

스트레스 유발 자극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부자극(어떤 생각이나 감정 경험) 때문에 일어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외부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외부자극의 예로,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경우 여러분은 피가 위로 솟구치고, 얼굴에 열이 나며, 근육이 경직되는 신체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곧이어 분노로 인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는 이러한 경우에 선을 잘 넘어가지 않지만, 한계를 넘어가면 겉으로 표현이 됩니다. 언성을 높여 따지거나, 심한 경우 신체적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안으로 쌓아 놓으면 병이 됩니다. 셀리에 박사는 이처럼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때 병에 걸리게 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뜻이지요. 특히 마음의 병이 있으면 머잖아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육체의 병이 오래되면 마음의 병도 깊어집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돼있고, 스트레스는 이 양자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 스트레스 대처의 중요성

셀리에 박사는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유발 자극에 대처하는 우리 노력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수록 질병을 더 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유발 자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니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은 MBSR의 개발자 존 카밋진 박사도 즐겨 했고, 종교도 알고 보면 이 가르침을 일상적으로 전하는 셈이니 곱씹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사고를 경험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다들 하는 경험이지만 내가 주의를 해도 상대방이 와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2,500만대나 되는 나라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사고가 무서워 운전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 바깥은 다 위험하니 나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설사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침착하게 잘 대처하면 도로나 차 자체에 공포를 덜 갖게 됩니다.

여러 종교 창시자들의 신앙체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관점이 바뀌었을 뿐 깨닫는 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자신도 관계도 세상도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반응하던 방식과 반대의 방법을 선택하면 스트레스도 덜 받거나 안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물과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이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안 받게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만큼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 2. 스트레스 반응

이제 본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리적, 심리적 균형과 안정 상태에 이르고 또 그에 이르면 이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이 크거나 한계를 넘어서면 균형이 깨지고 조절이 탈이 일어나 장애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과로나 사고 등으로 손상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끊임없이 다가오는 삶의 압력을 ‘과장’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 혹은 사고방식 때문에 더 망가집니다. 아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일반적일 것입니다. 결국, 스트레스 유발 자극에 대한 우리의 자동 반응 정도가 스트레스에 반응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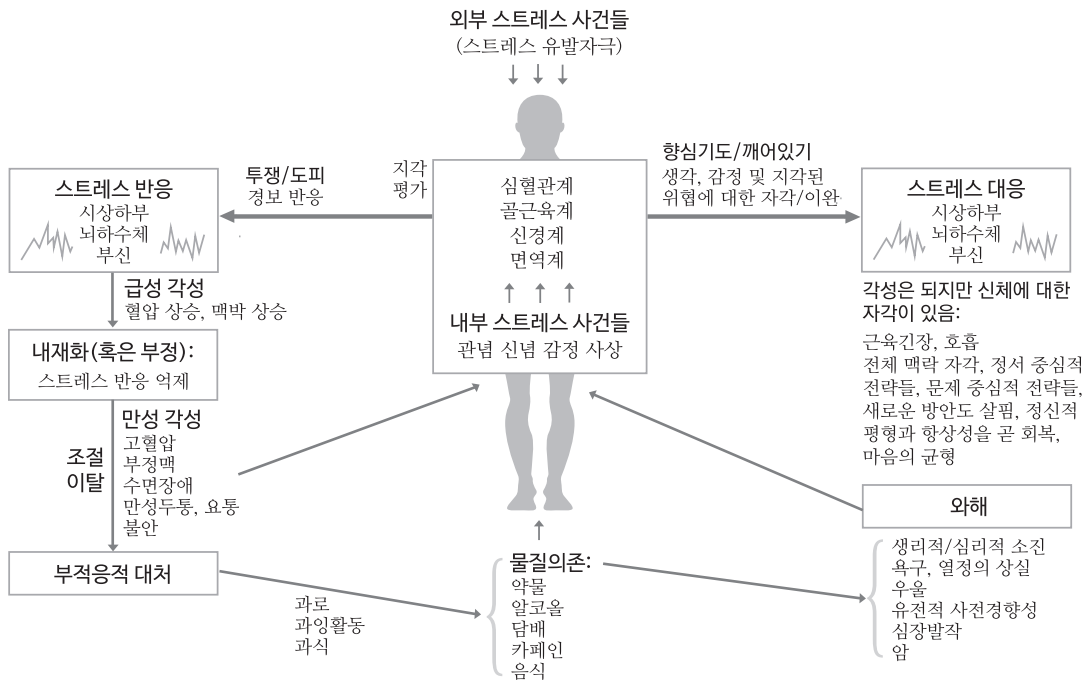
이를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 반응’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과거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과 닮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대체로는 처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며 몸이 경직됩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면서 불쾌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시선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을 빠르게 지나쳐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선입견이 생겨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대체로 이렇게 신체의 감각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그와 관련된 생각이 일어나며, 마지막 회피나 공격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이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것을 자동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여러 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하나의 동작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동 반응’ 강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고 또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MBSR과 같은 훈련을 하면 이 반응이 여러 단계로 쪼개집니다. 자동반응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여러 단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알아차리면 그 상태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설사 거기서 놓쳤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설사 다 놓쳤더라도 내가 그런 반응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내부에 적게 쌓여 훨씬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존 카밋진 박사는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자동으로 행동하는 것이 반응이라 하였고, 훈련을 통해 조절이 가능해지는 것이 대응이라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바람직한 것은 자동 반응을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통해 조절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 스트레스 반응과 대응



이제 존 카밋진 박사가 그린 그림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해해보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중요한 표현들을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투쟁·도피 반응’입니다. 어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에 직면할 것인지 아니면 회피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산책하는데 미친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개와 싸우든지 물리지 않기 위해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는 방법 두 가지가 각각 ‘투쟁과 도피’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의 몸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신경계 활동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스트레스 호르몬이 ‘에피네프린(epinephrine, 아드레날린)’인데, 이는 급한 위험이 닥칠 때 분비됩니다. 이런 순간에 직면하면 생각이 멈추고 몸의 활동만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이 잘 작동되어야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일 투쟁·도피 반응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건설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역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내재화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적응하는 데 실패하는 경험이 누적되면 만성적 각성, 고혈압, 부정맥, 만성두통, 요통, 불안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계속 조절하지 않으면 처음보다 훨씬 강한 스트레스 유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내재화까지 이르는 과정이 더 빨라집니다.

셋째, 여기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부적응적 대처) 과로, 과잉활동, 과식하게 되고 이는 중독성이 있는 다른 물질에 의존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다시 더 강한 스트레스 자극이 되어 현재까지 진행된 건강하지 않은 과정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은 앞의 단계까지 왔는데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궁극에 소진, 욕구와 열정의 상실, 심장발작이나 암으로 이어집니다.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미 수년간 이런 상태에 자신을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당연히 이 상태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3. 스트레스 대응

스트레스 대응이란 앞의 자동반응과 달리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극복하



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부적응적 대처 시도와 반대되는 건강하고 스트레스에  
올바로 대응하는 바람직한 대처 전략들 모두가 이에 속합니다.

스트레스 대응의 핵심은 ‘깨어있기’입니다. 깨어있기는 이를테면 이런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기억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잘들 기억하지만 그렇게 불러낼 가능성이 없  
을 때는 대부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를 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을 하려는 지를  
본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 실수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매 순간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는데 드는 시간은 1초가 안 되지만 스트레스  
를 만난 상황의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스트레스의  
성질과 그에 반응하려는 충동들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이미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협, 두려움, 분노, 혹은 상처를 느끼고 그 순간 몸  
에서 긴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함으로써 그런 마음의 동요가  
어떤 생각과 느낌, 감각인지를 즉시 깨닫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감정과 신체적  
반응이 다스려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받는 영향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스  
트레스 대응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대응전략의 하나로 개발된 몇 가지 수련법을 배워보  
겠습니다.

#### 4. MBSR

이 말은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의 줄임말입니다. ‘Mindful’은 마음이  
가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마음을 챙기고 있는 상태’ 또는 ‘알아차림의 상태’를 가  
리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늘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통상 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주 1회 2시간 30분간 강의와 실습을 진행하고, 나머  
지 6일은 집에서 매일 배운 내용을 적어도 45분 이상 실천해야 합니다. 기간은 통상 8주  
입니다. 이 기간에 마음 챙김, 바디 스캔(Body Scan), 호흡, 정좌 명상, 하타 요가 등을 통  
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지켜보기와 감정, 육체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  
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공식 명상으로 호흡, 바디 스캔, 정좌(正坐) 명상, 요가 등입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특정 장소에 머물며 진행하는 방식들입니다. 둘째, 비공식 명상입니다. 먹기, 걷기,  
자애 명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굳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 방법들입  
니다.

모두 여덟 가지로 구성되고, 8주 수련 후에는 공식 명상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해 주중에 6일 동안 매일 1회 45분씩 평생 실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연수 때 한번 배우고 마는 방식으로는 이 방법을 제대로 익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반년 동안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야 몸에 뱉니다. 이렇게 몸에 배고 나서도 꾸준히 수련을 해줘야 아무 때나 깨어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수련에 해당하는 네 가지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법입니다.

## 호흡 명상

모든 수련은 호흡(이하 숨)에서 시작합니다. 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숨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지 않는 순간 그 존재는 더는 생명일 수 없습니다. 둘째, 숨은 24시간 쉽니다. 그래서 숨과 연결하면 그것이 어떤 수련이든 24시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숨과 몸은 늘 현재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몸 안에 있으면서도 늘 떠돌아다닙니다. 현재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통해 분주히 움직이는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함으로써 깨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분심은 줄어들고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자신이 남이 되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객관적 위치에서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동양에서는 이처럼 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많이 계발해왔습니다.

숨을 이용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는 두 가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코끝(또는 비강처럼 들숨과 날숨이 교차하며 가장 의식이 많이 되는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고 숨이 콧구멍을 통해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곧 콧구멍을 통해 숨이 드나들 때의 느낌에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잡념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바라보며 지나가게 한 다음 내가 정한 부위를 지나는 호흡에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정한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잡념이 줄어들고 숨을 의식한다는 사실도 잊게 됩니다.

둘째, 의식을 아랫배(단전)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아랫배가 볼록해질 정도로 세게 하고, 뱉어낼 때는 뱃가죽이 등뼈에 닿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대한 많이 내뿜습니다. 이렇게 숨의 흐름에 따라 아랫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아랫배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동안 잡념이 일어나면 ‘생각이 났다’는 사실만 의식하고, 이어 그 생각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숨에 따라 부풀려졌다 커졌다 하는 배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뱉어낼 때 다른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에 매이지 말고 다시 숨으로 인해 부풀려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아랫배로 돌아옵니다. 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풁니다. 처음에는 5분에서 시작하여 점차 늘려 갑니다. 기본 시간은 45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자연스러우려면 최소한 서너 달은 계속 쉬지 않고

매일 해야 합니다.

숨만 의식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생각해보십시오. 화가 날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오랫동안 내보내 보십시오. 서너 번만 하면 웬만한 화는 가라앉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킬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은 이 방법을 몰랐을 때도 저희가 쓰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터득해 알고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천천히 가지런히 쉬면 급한 마음이 느긋한 마음으로 변하고 화도 덜 내게 됩니다. 피로도 잘 풀립니다. 숨을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지 이유를 이해하시겠지요?

### 바디 스캔(body scan)

스캐너를 사용해보셨나요? 그렇다면 스캐너의 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 들고자 하는 문서의 앞면을 스캐너 창에 올려놓으면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문서를 모두 찍어 하나의 문서로 재생합니다. 문서 맨 왼쪽부터 오른쪽 끝까지 주욱 훑어갑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방식을 스캐닝한다고 합니다.

바디 스캔도 같은 방식입니다. 스캐너가 카메라에서 쏘는 빛으로 순서대로 문서를 읽어가듯이, 바디스캔은 우리의 의식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대로 이동하며 신체 각 부위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방식입니다. 바디 스캔을 할 때는 몸을 부위별로 나누어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내가 정해 놓은 순서를 놓치면 마음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내적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 내적 여유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바닥이나 침대에 눕습니다.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이 따뜻해야 몸이 긴장하지 않으니 어느 정도는 따뜻해야 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담요를 덮거나 침낭을 이용하면 됩니다. 둘째,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서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눈을 뜨고 합니다.) 셋째, 숨을 들이 쉬고 내쉴 때마다 하복부의 오르고 내리는 모습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넷째, 몇 초 동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전체’로 느끼고, 몸을 감싼 피부 전체를 의식합니다. 방바닥이나 침대에 몸이 닿는 부분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그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면 그 순간 그 부위의 몸의 느낌을 잘 의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왼발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발가락 사이사이를 거쳐 새끼발가락까지 그 다음 부터는 발등, 발바닥을 오가며 오금까지, 오금

에서 앞뒤를 오가며 고관절까지, 이어 오른발 엄지발가락에서 시작하여 새끼발가락까지, 왼발과 같은 요령으로 고관절까지. 다리가 끝나면 몸통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앞뒤로, 또는 밑에서부터 목까지 장기 배열 순서에 따라 올라오면서 목까지, 이어 왼손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이후 손등 손바닥을 번갈아가며 손목까지,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오른손으로 넘어가 왼손과 같은 요령으로 어깨까지. 어깨서부터는 목, 얼굴 부분의 각 부위나 일정 간격으로 쪼갠 부위를 앞뒤로 번갈아가며 정수리까지 의식을 집중하며 올라갑니다.

주의가 산만해지면 다시 주의를 숨으로 돌리고 다시 하던 부위로 돌아가 집중합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 MBSR에서 호흡법보다 이 방법을 가장 먼저 합니다. 수련을 시작한 후 2주 동안은 매일 하루 45분을 해야 합니다. 기본 수련 시간은 45분입니다. 처음 하실 때는 너무 편안해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주무시고 잠이 오지 않으실 때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의식이 깨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정좌(Silent Sitting) 명상

세 번째는 마음을 챙기면서 고요한 장소에 앉아 주의를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몸을 푼다. 몸에 긴장된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풀어줍니다. 충분히 풀었으면 편하게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어 봅니다.

먼저 ‘앉는 법’입니다. 스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굳이 바닥에 앉아 결가부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으면 의자에 앉든 바닥에 앉든 상관없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의자에 대지 말고 허리와 머리를 똑바로 편 상태로 앉습니다. 다리는 바닥에 닿게 합니다. 다리가 공중에 떠 있으면 주의가 발 쪽으로 가고, 등을 대는 경우에는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익숙하지 않을 때는 등을 기대도 좋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할 때는 엉덩이에 방석을 받쳐 허리가 곧추 설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책상다리를 하고, 허리와 목은 앉아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곧추 세웁니다.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라서 가부좌나 결가부좌가 익숙하니 이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앉는 자세가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가입니다.

둘째,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앉았으면 숨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숨이 들고 나는데 의식을 집중합니다.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고 오로지 숨이 들고 나는데만 주의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몸의 모든 감각까지 느껴봅니다. 이 과정에서 그만하고 싶다고 느끼거나 온갖 잡념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충동이나 잡념에 주의를 주지

말고 그때마다 다시 아랫배와 숨에 주의를 돌려 관찰을 계속합니다. 특히 단전 부위가 숨이 들고 남에 따라 부풀려졌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모습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일어나는 잡념들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집중이 가능해지며, 마침내는 숨도 의식하지 않는 평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상태는 다시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일상에서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도와줍니다.

여러 방식이 있지만 ‘단지 앉아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찾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 영역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버려두고 고요히 머물며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하고, 20분 이상 앉아 있을 때까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완전히 익숙해지면 1회에 40분 이상 할 수 있게 합니다.

## 요가(Yoga)

몸을 변화시키거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클리닉에서는 바디 스캔, 정좌 명상과 함께 세 번째 명상 기법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신체가 여러 형태의 자세(Posture)를 취하는 동안 일어나는 숨과 감각에 순간순간 의식을 집중하면서 천천히 몸을 펴거나 힘을 주면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면 몸과 마음이 풀리는 느낌을 얻을 수 있고, 골격근의 힘이나 유연성이 향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련하는 요령입니다.

첫째, 힘들어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둘째, 몸을 순간순간 지금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셋째, 동작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매 순간에 주의를 집중하며(마음을 알아차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주의할 점은 동작할 때 복식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작마다 조용히 머물며 해당 신체 부위에서 일어나는 감각에 집중해보는 것입니다. 특정 자세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해지는 부위에 숨을 보내거나 내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몸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며 각 동작에 집중합니다. 무리한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다섯째,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옮겨가기 전에 반드시 쉽니다. 이때는 송장 자세가 좋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숨을 쉬는 복부에 집중합니다.

비공식 명상에도 네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나는 먹기와 다른 하나는 걷기입니다.



## 먹기(Eating)

아무 음식이든 먹으면서 모든 의식을 음식 먹는 동작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먹기도 마음을 바깥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놓는 일종의 주의력 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건포도 명상입니다.

건포도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만져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귀에 대보고 비벼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합니다. 오감(五感)을 이용해 음식을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5~20여 분 동안 진행한 뒤 입에 넣고 천천히 죽이 될 때까지 혀에 닿는 맛을 의식하며 서서히 목에서 위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집중해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건포도의 촉감, 냄새, 맛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 맛을 잘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차리는 수련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는 동작, 씹을 때 느껴지는 맛, 입안의 촉감 등에 집중하면서 한 순갈에 적어도 40회 이상 씹어 목 넘김을 합니다. 모든 음식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는 물론이고 몸의 감각이 예민해져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 상태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걷기(Walking)

발로 땅을 밟을 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는 명상법입니다. 초보자는 한 시간 정도 걷기 명상을 하는데, 처음 20분은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가며 단지 순서를 바꾸는 데만 집중합니다. 요령은 ‘왼발’이라면서 왼발을 들어서 옮기며 놓고, ‘오른발’이라면서 오른발을 들어서 옮기며 놓습니다. 이렇게 할 때 떠오르는 가벼운 생각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계속 발을 옮깁니다. 반복적이고 떨칠 수 없는 생각의 경우에는 잠시 멈췄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20분은 이 단순하게 발을 옮기는 동작을 세 가지로 구분해 의식해보는 것입니다. 역시 처음엔 왼발부터 시작합니다. 왼발을 ‘들고-옮기고-딘고.’ 그다음 오른발을 ‘들고-옮기고-딘고.’ 이렇게 왼발 오른발을 바꿔가며 발을 옮기는 동작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동작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마지막 20분은, 한 걸음을 4단계로 나누어 의식하는 방법입니다. 왼발을 ‘들고-옮기고-딘고-누르고 멈춥니다(10초~15초 정도).’ 다시 오른발을 ‘들고-옮기고-딘고-누르고 멈춥니다(10초~15초 정도).’ 이때는 무게 중심을 앞발에 놓고 이때 발바닥에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익숙해지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방법만으로 40분에서 1시간을 하시면 됩니다. 30분 정도만 할 경우에는 10분은 ‘왼발, 오른발’을 다음 20분은 ‘들고-옮기

고-딩고' 방식을 반복해도 됩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실내에서 합니다. 당장은 잘 안되지만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보통 속도로 걸을 때도 걷는 동작을 의식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에 현존하는 방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 5. 지속적인 훈련의 중요성

이런 기회에 참여하고 나면 다들 집에 돌아가서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돌아가면 이 결심을 이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들 자기 결심대로 이행했다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터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의와 실습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몸을 단련하고자 할 때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돈을 내고 관리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는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사는 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둘 다 중요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단련시키는 일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들은 배우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과 시간만 내면 됩니다. 일단 몸에 익히고 난 뒤, 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해보면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처럼 좋습니다.

이런 수련을 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수련을 지속하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을 곱게 써보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곱게 쓰려 해도 조절되지 않으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을 훈련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관건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에 먼저 시간과 돈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늘 정신이 맑으며 타인에게 관대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먼저 마음을 닦는 일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은 여기에 이르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느 것이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선택해 실천해보기를 권하면서 오늘 안내 강의를 마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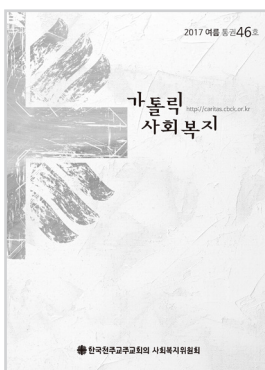


## 사회복지위원회(한국 카리타스) 소식

2017년 6월~11월

### 사회복지위원회

#### ■ 학술지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제46호 발행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은희 주교)는 2017년 6월 30일 (금) 교회 복지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학술지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제46호를 발행하였다.

‘Caritas 거울’에는 ‘가톨릭 사회복지 대회’의 전망과 과제에 대하여 실었으며, ‘Caritas 지식인’에는 HIV/AIDS 감염인의 영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료를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내가 사는 그리스도 사회복지’에는 여수 베타니아 공동체 김종호 회장의 인터뷰 글을 실었다. ‘Caritas 외침’에는 대전교구 서천 어메니타복지마을을 소개하였고, ‘교구 사회복지회(국) 특화 사업’은 인천교구의 본당 사회복지 활동 내용을 실었다. ‘가톨릭 사회복지 영성 지상 중계’에는 2017년 제2차 전국 사회복지 종사자 피정(2017년

4월 26~28일, 산청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강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총 72면, 4,000 부를 제작하여, 교구 사회복지회(국)를 통하여 전국 본당과 사회복지 기관, 각 대학교서관 등지에 배포하였다.

#### ■ 2017년도 제4차, 제5차, 제6차 가톨릭 사회복지 전국 피정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심과 영성 강화를 위한 2017년도 제4차 가톨릭 사회복지 전국 피정을 6월 21일(수)~23일(금) 계성 푸른누리 수련원에서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갈라 5,6)라는 주제로 한 이번 피정에는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직원 65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명호 신부(춘천교구 사회복지회 회장)가 강의하였다.

제5차 전국 피정(2017년 7월 19일~21일)과 제6차 전국 피정(2017년 9월 20일~22일)을 경기도 용인 수지성모교육원에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사회복지 현장의 직원 87명(제5

차)과 58명(제6차)이 참가하였으며, 오혜경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사의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다.

#### ■ 사회복지위원회 2017년 8월 29일 회의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8월 29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21차 운영 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김운회 주교 외 8명의 위원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워크숍 개최 계획안과 하반기 사업 계획, 2018년 전체 실무자 연수 계획안을 논의하였다.

#### ■ 2017년 워크숍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10월 25일(수)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서의 종교 사회복지의 역할(교구와 수도회의 유지재단과 사회복지 법인의 분리 운영)”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위원장 김운회 주교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워크숍은 김영환 신부(부산교구 사회사목국 국장)의 ‘유지 재단과 사회복지 법인의 분리 요청’, 김종민 신부(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의 ‘재산 분리 문제’, 현경훈 신부(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의 ‘조직 분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의 ‘한국의 복지국가, 그리고 종교 사회복지계

의 역할’과 정무성 교수(송실사이버대학교 총장)의 ‘복지사회와 종교복지의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이 있었다. 교구 사회복지회(국)와 수도회 등에서 85명이 참가하였고, 교회 내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교구와 수도회의 유지 재단과 사회복지 법인 간의 분리 운영 방안과 앞으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에서 종교 사회복지의 역할을 전국적 차원에서 함께 공유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 ■ 2017년도 제7차 가톨릭 사회복지 전국 피정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도 제7차 가톨릭 사회복지 전국 피정을 10월 25일(수)~27일(금) 부산 은혜의집에서 개최하였다.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의 직원 55명이 참가한 이번 피정은 “그리스도인이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기 인식 ‘일어나 가자(요한 14,31)’”라는 주제로 부산교구 사회사목국에서 주관하였고, 김영환 신부(부산교구 사회사목국 국장)가 강의하였다.

#### ■ 2017년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직원 해외 연수(싱가포르 카리타스)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현장 직원들에게 외국 카리타스의 사회복지 기관의 견학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근속 직원과 중간 관리자의 포상 차원에서 2017년 전국 가톨릭 사회복지 직원 해외 연수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는 11월 12일(일)부터 17일(금)까지 싱가포르 카리타스의 5개 사회복지 기관을 방문하였고,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정성환 신부가 인솔 책임자로 5개 교구에서 총 13명이 참가하였다.

#### ■ 사회복지위원회 2017년 11월 21일 회의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17년 11월 21일(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제22차 운영 위원회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김운회 주교 외 9명의 위원 신부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가결산 보고와 2018년 전국복지 협의단체 지원금 배정안,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진흥원(가칭) 설립 추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 ■ 2016년도 연례보고서 발행

국제 카리타스 회원기구이자 한국 교회의 공식 해외원조 기구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사장 김운회 주교)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전 세계 국제 카리타스 회원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단체들에게 알리고 연대와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도 연례보고서’를 제작하였다. 6월 5일 발행된 연례보고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총 300부 제작하였으며, 6월에 개최된 아시아 카리타스 총회에 참석한 카리타스 파트너 기구들에게 배포하였고 국내에서도 카리타스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하였다.

#### ■ 2017년도 아시아 카리타스 총회 참가

지난 6월 12~1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아시아 카리타스 포럼 및 총회에 사무국

장 추성훈 신부가 참가하였다. 6월 12~13일에 열린 아시아 카리타스 파트너 포럼에는 아시아 카리타스의 회원기구와 비아시아 카리타스 파트너 기구, 국제 카리타스 본부의 참가자 총 89명이 참가하였다. 파트너 포럼에서는 ‘아시아 카리타스와 통합적 인간발전’에 대한 주제 강연과 아시아 카리타스의 4개년 전략 계획(2017~2020년)의 주요 주제 6가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①긴급구호와 재난위기 감소, ②안전한 이주와 인신매매 방지, ③환경정의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④제도발전과 역량 강화, ⑤영적 향상과 내적 대화, ⑥옹호활동과 상호대화. 6월 14일 개최된 총회에는 아시아 카리타스 24개 회원기구들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는 아시아 카리타스의 4개년 전략 계획(2017~2020년)과 정관 개정을 승인하고, 국제 카리타스와 아시아



카리타스의 회비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2018년도 총회는 2018년 6월 11~14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 ■ 태국 내 미얀마 난민캠프 현장방문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사무국장 추성훈 신부와 운영위원 김정렬 신부(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상임이사)는 6월 15~20일 태국 내 미얀마 난민캠프 2곳의 현장방문을 하였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태국 내 미얀마 난민 지원 사업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미화 31만 달러(한화 347,034,812원)를 지원하였다. ‘미얀마 난민 아동 교육 사업’을 위해 2017년에는 4개 캠프의 난민 아동들에게 교복과 학비를 제공하고 아동을 위한 공간(아동쉼터)을 지원하고 있다. 태국 매홍손 주의 매라마루앙 캠프에는 약 15,000명의 미얀마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아동은 약 4,000명이다. 교육지원이 필요한 난민 아동의 수는 95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아동들에게 학비와 교복이 제공되고 있다. 매홍손 주의 반마이나이소이 캠프는 산속에 위치하고 있다. 캠프에는 약 1만 명의 미얀마 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은 3,4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지원이 필요한 난민 아동의 수는 2,787명이며,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1,000여 명의 아동에게 학비와 교복이 제공되고 있다.

### ■ 2017년도 제3차 해외원조 실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6월 28일(수) 사무국에서 2017년도 제3차 해외원조 심의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구호 10개 사업에 대해 심의하였다. 그리고 이사회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 카리타스 긴급구호 사업 3개와 시리아 카리타스 긴급구호 사업 1개에 총 미화 200,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르완다의 부룬디 난민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니제르 보코하람 분쟁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필리핀 마라위 분쟁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시리아 하사케 지역 내전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 ■ 제1차 대북지원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19일(수) 제1차 대북지원자문위원회 회의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층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8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고 2명이 불참하였으며, 대구대교구 이종건 신부가 신임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원장 추성훈 신부의 진행으로 2017년 상반기 대북지원 사업보고 및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 가톨릭 해외원조 네트워크 모임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8월 31일(금)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교구, 수도회, 단체 등 18개 기관



의 책임자와 실무자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해외원조 네트워크 모임>을 개최하였다.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가톨릭교회 내 해외원조 주체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연대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크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모임은 ‘인권과 개발의 만남-인권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접근(Human Right-based on Approach)’에 대한 한국 인권 재단 이성훈 상임이사의 주제 강연과 참가한 교구, 수도회, 단체들이 해외원조 사업 활동과 사업 지원 방법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국제 카리타스의 세계 난민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및 아시아 카리타스 인신매매 방지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였고, 해외원조 사업을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다.

### ■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9월 6일(수) 오전 11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 추성훈 신부 외 5명의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 보고 및 하반기 사업 계획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17년도 4차 해외원조 사업을 심의하여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하였다.

### ■ 2017년도 제4차 해외원조 실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제2차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아래와 같이 국제 카리타스 긴급구호 5개 사업과 개발협력 1개 사업에 미화 334,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긴급구호 사업>

베네수엘라 식량 위기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긴급구호	미화 100,000달러
인도 홍수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방글라데시 홍수 피해 긴급구호	미화 100,000달러
시에라리온 산사태 피해 긴급구호	미화 20,000달러

#### <개발협력 사업>

네팔	부탄 난민 아동 교육 지원	미화 14,000달러
----	----------------	-------------

### ■ 제5차 해외원조 실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9월 13일(수)에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심의를 위한 제5차 해외원조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사장 김운회 주교의 재가를 받아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사업과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긴급구호 사업에 각각 미화 50,000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 <긴급구호 사업>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 ■ 해외원조 후원회보 「희망」 제89호, 제90호 발행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해외원조 활동을 알리며 후원회원들에게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후원회보 「희망」 제89호, 제90호가 지난 7월 3일(월), 9월 25일(월)에 발행되었다. 제89호에는 사무국장 추성훈 신부의 인사글로 시작하여 2017년 아시아

카리타스 총회 참가 보고와 이라크 모자보건 사업 보고 내용을 실었다. 또한 남수단 분쟁 피해 긴급구호 사업 내용과 2017년도 2분기 긴급구호 사업 지원 내용, 그리고 기아 퇴치 환경 캠페인의 특집 기사와 시리아의 평화를 위한 캠페인 기사를 실었다. 제90호에는 사무국장 추성훈 신부의 인사글로 시작하여 미얀마 난민 캠프 현장 방문 보고 내용을 담았다. 희망 SOS 소식으로는 시에라리온 산사태 피해 긴급구호 기사와 3분기 긴급구호 사업 기사를 실

었다. 또한 '시리아의 평화는 가능하다' 특집 연재 기사와 기후 변화에 중점을 둔 기아 퇴치 캠페인 기사를 실었다. 총 16면, 15,000부가 제작되어 후원회원과 전국 본당 및 사회복지 시설·기관에 배포되었다.

#### ■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7년 11월 15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장 추성훈 신부 외 6명의 운영 위원이 참석하여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 2018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2017년도 제6차 긴급구호 사업과 2018년도 개발 협력 사업을 심의하였다.

#### ■ 2017년 11월 23일(목)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7년 11월 23일(수)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25호에서 2017년도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사장 김운회 주교와 정신철 주교, 유경춘 주교, 홍부희 신부, 신인미 수녀, 윤형한 변호사 등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승인하고 2017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 받았다. 또한 2018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안, 2017년도 제6차 긴급구호 사업과 2018년도 개발 협력 사업을 승인하였다.

### ■ 2017년도 제6차 해외원조 실시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2017년 11월 15일(수) 제2차 정기 이사회 승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제 카리타스 긴급 구호 6개 사업에 미화 390,000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콜롬비아 난민 위기 긴급구호	미화 70,000달러
콩고민주공화국 카사이 분쟁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파키스탄 홍수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앤티리스 태풍 피해 긴급구호	미화 100,000달러
에티오피아 가뭄 피해 긴급구호	미화 50,000달러
시리아 라타키아 지역 분쟁 피해 긴급구호	미화 70,000달러



주

소

록

●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전화 02)460-7641 · 팩스 460-7629 · E-mail caritascor@daum.net · <http://caritas.cbck.or.kr>

●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서울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04918)  
전화 02)460-7639 · 팩스 460-7617 · E-mail caritas@cbck.or.kr · <http://www.caritas.or.kr>

● **교구 사회복지회(국)**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23번지 (61244)  
전화 062)510-2882 · 팩스 510-2889 · E-mail gjcaritas@daum.net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대구대교구청 별관 (41969)  
전화 053)253-9991 · 팩스 253-3888 · E-mail dgcaritas@dgcaritas.or.kr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2 가톨릭사회복지회관 (34438)  
전화 042)635-5111 · 팩스 625-6111 · E-mail caritastj@catholic.or.kr

**마산교구 사회복지국**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 27 교구청 내 (51727)  
전화 055)249-7041~2 · 팩스 249-7044 · E-mail bokji2@cathms.or.kr

**부산교구 사회사목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37. 로사리오 카리타스 (46267)  
전화 051)516-0815 · 팩스 516-0816 · E-mail caritasbs@daum.net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04537)  
전화 02)776-1314 · 팩스 754-5636 · E-mail caritasseoul@daum.net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13, 2층 (14001)  
전화 031)441-5833 · 팩스 441-5834 · E-mail cssw@casuwon.or.kr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경북 영주시 봉화로 2, 2층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 (36065)  
전화 054)633-6761~2 · 팩스 633-6940 · E-mail caritasandong@daum.net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도 원주시 개륜 1길 65 (26331)  
전화 033)731-4557~8 · 팩스 731-4559 · E-mail wjcaritas@catholic.or.kr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5번길 27 (11674)  
전화 031)850-1481~3 · 팩스 873-4482 · E-mail caritasdaegun@daum.net



####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3 인천교구 사회복지센터 202호 (22321)  
전화 032)765-6966 · 팩스 762-9193 · E-mail bokji6966@naver.com

####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교구청 2층 (55036)  
전화 063)230-1073~5 · 팩스 284-4855 · E-mail sarangdari@daum.net

####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제주특별자치도 관덕로 8길 14 제주교구청 내 (63168)  
전화 064)729-9511 · 팩스 729-9518 · E-mail caritasjeju@naver.com

#### **청주교구 사회복지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5-35 청주교구청 내 (28337)  
전화 043)210-1714 · 팩스 210-1797 · E-mail caritas-cj@daum.net

#### **춘천교구 사회복지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67번길 54 춘천교구 사회복지회관 (24355)  
전화 033)243-4545 · 팩스 243-4546 · E-mail cccaritas@daum.net

#### **● 복지분야별 전국협의단체**

**가톨릭결핵사업연합회** · 서울 성북구 선잠로 9-6 작은형제회 102호 (02837)  
전화 02)762-8155 · 팩스 763-8050 · E-mail mari9180@hanmail.net

**가톨릭나사사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 양화로8길 25-8 성보빌라트 402호 (04044)  
전화 02)3144-6311 · 팩스 3144-6312 · E-mail clwak@catholic.or.kr

**가톨릭노인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시리미로 42 (23039)  
전화 032)933-9960 · E-mail badastar10@naver.com

**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 · 서울 강북구 노해로 29 (01078)  
전화 02)995-7394 · 팩스 903-5119 · E-mail appffaa@daum.net

**가톨릭아동복지협의회**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61 (26415)  
E-mail zzounnal@hanmail.net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서울 강남구 개포로 623 (대청타워) 1335호 (06336)  
전화 02)451-0333~4 · 팩스 459-3869 · E-mail webmaster@blindmission.or.kr

**가톨릭장애인사목협의회** · E-mail hangajang1@hanmail.net

**마을과아이들(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  
서울 중구 난계로 11길 30, 104동 504호 (황학동코아루)(04575)  
전화 02)773-0102 · 팩스 6353-1709 · E-mail ecaritasorg@hanmail.net

**가톨릭레드리본** · 서울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04537)  
전화 02)753-2037~8 · 팩스 333-4938 · E-mail redribbon@catholic.or.kr

**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 경북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516-16 들꽃마을 (40153)  
전화 054)956-9800 · E-mail ca21116@hanmail.net

한국 천주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이웃사랑을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이들을 보듬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며 가난한 이들과 어울려 참 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산하 전국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는 교회의 구호, 복지, 개발 활동을 조정하고 격려하며 정책 제안과 함께 이를 위한 인적, 기술적,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사회복지」는 교회 복지활동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회의 제도와 특성을 살린 교회 복지 전달체제와 정책을 개발하고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편집자문

정성환(사회복지위원회 총무)  
최정묵(청주교구 사회복지국 국장)  
현경훈(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배달하(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김종민(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 회장)  
박문수(의정부교구 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  
유영준(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동혁(대전교구 사회복지회)  
정진모(비영리컨설팅 웰핍 대표)

## 가톨릭사회복지

펴낸이 : 김윤희

역은이 : 정성환

편 집 : 서창원

편 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 1동 643-1)

전화 02)460-7641 / 팩스 02)460-7629

<http://caritas.cbck.or.kr> / [caritascor@daum.net](mailto:caritascor@daum.net)

발행일 : 2018년 1월 25일

제 작 : (주)더셀 02)2264-929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Committee of the C.B.C.K.**

04918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74(중곡1동 643-1) • 전화 02)460-7641 • 팩스 02)460-7629  
<http://caritas.cbck.or.kr> • [caritascor@daum.net](mailto:caritascor@daum.net)